

'비전교회함께하기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제3차 신바람목회세미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15-16)



인사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국교회는 그 동안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미자립교회 문제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비전교회 함께하기 운동본부에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세 번째 신바람목회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비전교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6월 13일

비전교회 함께하기 운동본부 회장 7/13 호 감독

일정표

구 분	1일차(13일 월)	2일차(14일 화)	3일차(15일 수)
06:00~07:00			♨
07:00-08:00		목회 임지의 현실과 작은 교회들의 살 길 박현식 목사(한국목회임지연구소)	나의 목회 철학 김동걸 목사(돈암동교회)
08:00-09:00	조 식		
09:00-10:20		맨 땅에 헤딩하기 박민경 목사(형제교회)	개척교회목회자의 자세와 치루어야 할 댓가 오생락 목사(춘천 하늘평안교회)
10:20~10:40		휴 식	
10:40~11:20		이렇게 전도했다 김두현 목사(진도교회)	종합토의 및 정리
11:20~12:00			결단예배 정용자 목사 (전 감리교연수원장)
12:00~13:00	중 식		
13:00~14:00		발마사지전도법 전대박교수(한영대학교)	
14:00~14:30		패러다임전환목회 박상길목사(효교교회)	
14:30~15:00	등록, 방 배정		
15:00~15:50	미자립교회선교 정책소개 태동화 목사		
16:00~18:00	새가족 정착 김건우 목사(국제제자훈련원)	현장견학(복지목회) 도고중앙교회 아산사회복지관	
18:00~19:30	석 식		
19:30~20:00	찬양과 기도		
19:30~21:00	저녁집회1 이창준 목사(천안갈릴리교회)	저녁집회2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	

||||| CONTENTS |||||

06 _ 저녁집회1: 다윗왕의 정치

08 _ 저녁집회2 :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자

10 _ 결단예배 : 목회자의 유혹

12 _ 미자립교회 선교정책 소개

15 _ 강의1 새가족 정착 (동화와 정착과정)

22 _ 강의2 한국 교회 목회 임지의 현실과 작은 교회들의 살 길

27 _ 강의3 맨땅에 헤딩하기

30 _ 강의4 이렇게 전도했다

34 _ 강의5 발마사지 전도법

35 _ 강의6 패러다임전환 목회

48 _ 강의7 현장 견학 (복지목회)

55 _ 강의8 나의 목회 철학

56 _ 강의9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세와 치루어야 할 댓가

59 _ 부록. 교회 개척형 리더십 연구

77 _ 참고문헌

79 _ 참석자명단

81 _ 강사명단

82 _ 비전교회 함께하기 운동본부 조직

83 _ 찬양모음

지역집회1

사회 : 원종휘 목사(만석교회/본회 총무)

조용한기도 다같이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같이

1.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2. 정육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3.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써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통성기도 다같이
성경말씀 사무엘하 6:14~16 사회자
말씀 【다윗 왕의 정치】 이창준목사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다같이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통성기도의시간 설교자
축도 김진호 감독

저녁집회 | Memo

지역집회2

사 회 : 이광호 목사(도봉교회 /본회 회계)

조 용 한 기 도 다 같 이
찬 송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할 때) 다 같 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써 갈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맑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통 성 기 도 다 같 이
성 경 말 씀 사도행전20:22~24 사 회 자
말 씀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자】 송 기 성 목사
찬 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다 같 이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거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광 고 사 회 자
축 도 김 진 호 감독

저녁집회2 Memo

결단예배

사회 : 태동화 목사 (본회 협동총무)

조용한기도 다같이
찬송 496장 (새벽부터 우리) 다같이

1.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익어 곡식거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거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후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 맡은이
성경 누가복음 12:13~21 사회자
말씀 【목회자의 유혹】 정용치 목사
찬송 495장 (의은 곡식 거둘 자가) 다같이

1. 의은 곡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어서 가자 밭으로
2.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의은 곡식을 어서 거두려가자
3.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후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광고 사회자
축도 김진호 감독

미자립교회 선교정책 소개

태동화 목사(감리회 본부 선교국 총무 직무대리)

1. 미자립교회의 의미

개체교회 자립의 의미에 대하여 재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신설)’ 제1장 총칙(p439)에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 2,500만 원 미만의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그 기준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는 제26차 총회 5차 총회실행부위원회(2006.1.26) 결정에 의하여 2,500만 원 미만의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규정한다.

2. 미자립교회를 위한 정책

1) 미자립교회 유형별 접근

미자립교회를 그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 종류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각각 수립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1) 여건적 미자립교회

지역 여건과 환경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농어촌교회 등이다. 끊임없는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농촌교회가 점점 어려워졌다. 목회자의 능력보다는 여건적으로 어려운 교회이다. 이를 교회를 위해서는 생활대책을 강구하고 정주목회 계획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목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침체된 미자립교회

교회가 개척되면 초대 담임자 재직기간 중에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교인도 몇 되지 않은 상태로 개척된 지 5년이 넘어가고 담임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 이런 교회가 곧 침체된 교회이다. 이런 교회들은 현재 상황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방과 연회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비 지원과 아울러 이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3) 발전적 미자립교회

현재는 미자립교회이나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곧 자립할 소망이 있는 교회이다. 이런 교회는 지방적으로나 연회적으로 우선 지원교회로 지정,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월세교회라면 전세교회로, 전세교회라면 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대상교회가 되어야 한다.

2) 목회자를 위한 접근

(1) 최저생활비 지원/ 최저생활비 기준안 마련

최저생활비 기준안을 확정한다. 최저생활비에 있어서 개체교회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 연회, 본부 차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할 것이다.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교회 대표통장제 도입을 연구할 것이다. 아래 표는 2011년 최저생활비 마련을 위한 기준 제시안이다.(기본급+목회비, 도서비 등)

구분	매월 기본급	자녀1(중,고,대학생의 경우)			자녀2		자녀3
		중학생 (100,000)	고교생 (200,000)	대학생 (300,000)	중학+고교	고교+대학	
2인 가족	1,200,000						
3인 가족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4인 가족	1,400,000				1,700,000	1,900,000	
5인 가족	1,500,000						2,100,000

지방 미자립교회대책위원회는 조사표에 의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지방 차원에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연회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회차원에서 법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기존의 미자립교회 지원현황

(1) M-Project/실험교회 운영을 통한 미자립교회 극복 프로젝트

코칭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극복 모델

실험교회를 선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미자립교회의 극복 모델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방 및 연회 차원에서 실행하도록 선교국이 주최하고 M-Center (감리교선교학연구소)가 주관하여 실시한 프로젝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선교국 발간 미자립교회 정책서 '비전교회를 위한 비전'의 첨부자료1. 혹은 <http://www.m-center.org> 참고)

(2) SISTER 전도

SISTER 전도란 선한목자가 양을 돌보듯, 누나는 동생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며 사랑으로 돌본다는 대명제하에 아래 여섯 가지 전도방법의 첫머리를 딴 것으로 영혼구원-생명사랑-생명 돌봄 운동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홈페이지 www.sim.or.kr 참고)

(3) 재정 지원(월세·전세, 전세·대지구입)

현재 많은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다. 1년에 1교회씩 발전적인 미자립교회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월세교회를 전세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고, 전세교회는 대지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차원에서 후원하는 것이다. 연합성회의 현금도 가급적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4) 지방 내 자매결연

지방 내 중형,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자매결연하여 후원하는 형태이다. 이는 전도와 관련한 것과 교회학교와 관련한 것 공동 성경공부 프로그램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

(5) 교인 파송

중, 대형교회에서 미자립교회로 교인 가정을 파송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미자립교회로 파송 기간은 1~2년, 규모는 1~3가정 정도가 알맞다.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6) 신천장로 파송

지방회에서 의무적으로 또는 권면하여 신천장로(가족 포함)를 1년간 지방 내 미자립교회에 파송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교회의 신천장로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대형교회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방회 차원의 합의와 중, 대형교회의 배려로 가능한 일이다.

(7) 지방 전도대

미자립교회를 돋는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가 전도대 파송이다. 여기에는 상설 지방 전도대가 효과적이다. 지방적 차원에서 웨슬리 전도대를 만들어 매주 또는 격주로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전도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8) 지방 평신도 연합기관 등의 전도활동

지방 남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장로회연합회 등을 미자립교회에서 모이고 그 교회를 위하여 현금하고, 모임 후에는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이다.

3. 현황

1)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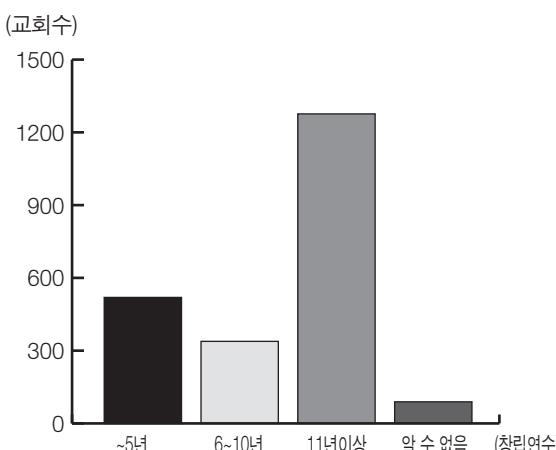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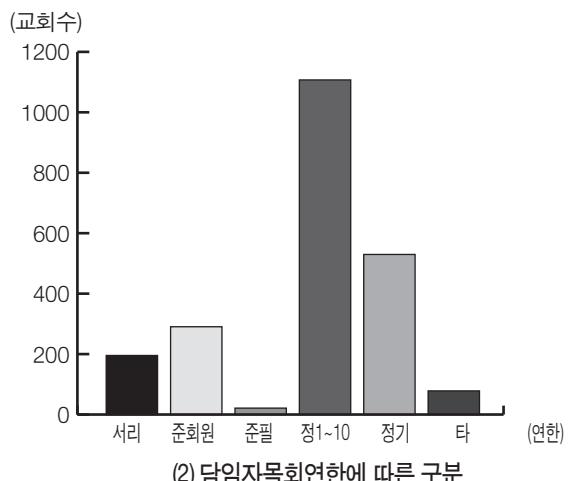
전년대비 전체 교회 수는 127개소가 늘었고 미자립교회 수는 112개소가 늘었으며 전체 교회에서 미자립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에서 39.9%로 3.6% 상향되었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전 체 교 회	5,507	5,605	5,719	5,846
미자립 교 회	2,160	2,146	2,182	2,337
미자립교회 비율	39.20%	38.30%	36.30%	3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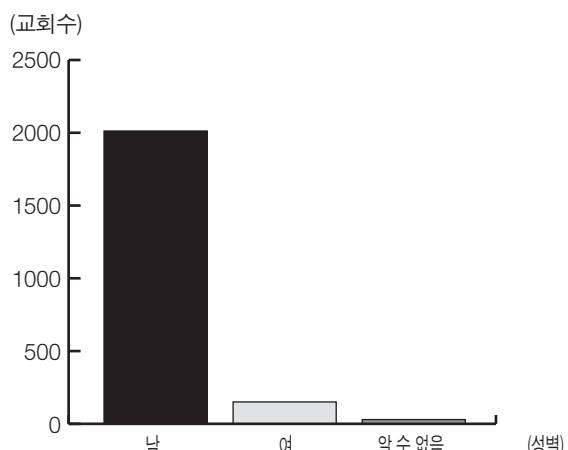
2) 세부 현황

경상비	2009	2010
~500만원미만	449	483
500~1,000만원미만	658	661
1,000~1,500만원미만	437	459
1,500~2,000만원미만	367	344
2,000~2,500만원미만	298	302
알 수 없음	16	88
계	2,225	2,337

(1) 경상비 대비 미자립 교회 수



(3) 교회 창립에 따른 구분



(4) 성별에 따른 구분

강의I. 새가족 정착 (동화와 정착과정)

김건우 목사(국제제자훈련원 대표총무)

서론

1. 핵심가치(Core values)

우리가 사람, 사물, 아이디어, 원칙에 대해 부여하는 우선순위이며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다. 핵심가치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핵심가치는 교회가 선택하는 프로그램과 행동 양식에 반영되어 있다.

2. 비전(Vision)

비전이란 우리가 장래에 성취하기 원하는 소망의 분명한 그림이다. 비전은 10여년 사이에 이루기 원하는 장래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도 같다. 비전은 그림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

3. 사명(Mission)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명이다. 사명선언문은 목회에 있어서는 목회의 대상이 누구이며(Who),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What),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를(How) 간결하게 나타내 준다.

4. 목회 모델(Model of Ministry)

원리가 아닌 모델이다. 구도자 중심의 교회, 선교지향적 교회, 가정교회 등 목회의 독특한 유형과 스타일, 혹은 전략을 나타낸다.

목회 시스템의 중요성

I. 동화와 정착과정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1. 새신자 탈락의 문제는 _____ 책임이 더 크다.
2. 새신자는 _____ 그만이다.
3. 새신자는 _____ 최소한 과반수 이상 정착한다.
4. 새신자와 기존신자의 교제는 _____.
5. 새신자 정착의 책임은 _____ 있다.
6. _____ 새신자 정착에 중요하지 않다.
7. _____ 새신자 정착에 문제가 없다.

■ 생각해 볼 문제

1. 새신자에 대한 잘못된 태도 일곱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태도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핵심원리

1. _____ 을 _____으로 전환하라.
2. 유전자를 _____로 전환하라.

II. Attracting

- 전도란 _____ 계획하고 행해야만 한다.
- 사람들로 하여금 _____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라.
- 이미 갖고 있는 _____ 활용하도록 하라.
-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_____ 마련한다.

1. 첫인상의 중요성

첫 인상 체크리스트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항 목	점수	항 목	점수	항 목	점수
자동응답기/안내		유아실		다양한 의사 소통 방법	
따뜻하고 다감한가?		청결한가?		빔프로젝터 활용	
명확한 정보를 주는가?		아이를 맡길 만한가?		비디오나 드라마 활용	
전문적으로 보이는가?		요원들이 잘 훈련되었나?		슬라이드	
		환영팀이 배치되었는가?			
표지판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었나?		예배시간	
길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사람들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는가?	
로고가 산뜻한가?		분위기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인가?	
색깔이 있는가?		배경음악이 밝고 생동력 있는가?			
주보 - 오타, 정확한 문법		밝은 조명인가?		목회자 설교	
		냄새가 나지는 않는가?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가?	
시설		실내장식이 잘되어 있는가?		성경이나 본문 준비	
주차가 쉬운가?		편안한 의자와 공간인가?		성경을 인용하는가?	
외부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내부가 정감 있고 흥미로운가?		아동 프로그램과 봉사자		투명함과 진실함	
화장실이 잘 표시되었나?		열정 있는 봉사자인가?		지루하게 길지는 않은가?	
유아실이 잘 표시되었나?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방인가?			
특별 정보가 잘 강조되었나?		교재가 흥미롭고 나이에 적절		방문자 마중팀 (Up-fronter)	
				따뜻하고 열정적인가?	
		명칭		복장이 적절한가?	
안내, 환영		"주일 학교"가 아님		진실하게 느껴지는가?	
친근하고 해박한가?		내부 용어를 피함			
남녀의 수적 균형이 있는가?		명확하고 공감적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	
고른 연령인가?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를 확신 하는가?	
		음악			
		청취자의 기호에 알맞음			
		에너지			
		가사(찬양단의 목소리가 들린다)			
		작성, 기술(필수)			

★ 방문자 마중팀 (Up-Fronter) : 환영팀과 유사하고 새신자에게 처음 다가가는 사람

2. 그룹토의(Workshop)

1)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맛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당신의 멤버 중 전도 대상자들을 끌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III. Recruiting

- 우선 _____ 사람부터 시작하라.
- 사람을 모을 수 있는 _____ 개발하라.
- _____ 다음 300명을 결정한다. - Bill Easum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잠언 26:10)

1. 사람을 모으는 일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

- 1)
- 2)
- 3)
- 4)
- 5)

2. 그룹토의(Workshop)

1)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내가 접촉을 시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름을 적어보라. 이미 개척을 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과 처음 접촉하였는가 생각해 보라.

2) 우리 교회 핵심 멤버 가운데 사람을 모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V. Tracking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 자격 유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1.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들

- 1) 복음의 핵심이 쉽게 전달되는 _____ 가 있어야 한다.
- 2) 살아있는 _____ 가 있어야 한다.
- 3) 새신자를 환영하는 _____ 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4) _____ 를 맺어주어야 한다.
- 5) _____ 을 구성하라.
- 6) _____ 을 활용하라.
- 7) _____ 을 놓치지 말라.
- 8) 실질적인 _____ 가 필요하다.
- 9) 사람들의 _____ 찾으라.

2. 새가족 모임의 목적

- 1) 복음을 듣게 한다.
- 2) 목회자를 알게 한다.
- 3 또 다른 _____ 만나게 한다.
- 4) 교회의 _____ 배우게 한다.
- 5) 정식신자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

3. 그룹토의(Workshop)

- 1) 새 가족 정착을 위한 새 가족 모임과 양육 시스템은 건강한가?

- 2) 새 가족을 맞이하는 안내자는 누구이며 잘 훈련되어 있는가?

진단을 위한 질문

목회자

1. 담임목회자가 정착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새가족의 소중함을 증명해 보인다.
2. 주일 예배 시 의식적으로 새 가족들을 배려하는 노력을 한다.
3. 정착 과정, 원리, 프로그램 등이 분명한 목회 철학 속에 정립되어 있다.

아니다 ←→ 그렇다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정착을 위한 토양

4. 교회가 새로운 구성원의 등장에 대해 경계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5. 성도들이 새 가족 양육을 기쁨으로 여긴다.
6. 예배에 새 가족을 위한 배려가 있다(순서지, 용어, 찬양, 설교 등등).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정착 전략

7. 새 가족 만을 담당하는 전임사역자나 조직이 있다.
8. 방문자들을 양육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다.
9. 새 가족 모임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은 직분은 물론이고 교회의 핵심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정착 과정

10. 방문자들을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려낼 방법을 가지고 있다.
11. 방문자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얻어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12. 예배 중에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다.
13. 모든 방문자들이 빠짐없이 매주 적어도 세 사람에게서 환영 받을 수 있다.
14. 방문자들은 1주 이내에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양육대상에 오른다 (편지, 전화, 심방 등).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정착 프로그램

15. 새 가족 모임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6. 정착과정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7. 정착과정에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이 크다.
18. 비정기적이고 비형식적인 양육이 소그룹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19. 방문자들을 새 가족 모임에 초청하고 참여시키는 수단이 있다.
20. 새 가족 모임에서 사용할 교재와 교육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21. 새 가족 모임은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된다.
22. 새 가족 모임을 마치기 전에 5명 이상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
23. 새 가족 모임이 마쳐지면 다음 단계의 양육이나 혼신으로 연결된다.
24. 전도를 통해 유입된 새 가족들의 정착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25. 새 가족 모임을 마치고 나면 구원의 혼신이 서고, 몸 된 교회의 자체가 되었다는 혼신을 갖게 된다.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변화를 위한 행동 지침과 계획

목회자	
정착을 위한 토양	
정착전략	
정착과정	
정착 프로그램	

참고자료_사랑의 교회 새가족 모임 소개

1. 미자립교회의 의미

1. 새가족 모임 참석을 위한 홍보

- 1) 예배 시간마다 사회자의 환영과 광고
- 2) 교역자들의 권면과 구역장(순장)의 권면과 인도
- 3) 제도적인 장치 : 학습 세례의 조건, 제직추천이나 제자훈련의 지원 조건

2. 시간운영

- 1) 대상 : 사랑의교회 전교인
- 2) 시간 : 주일 오전 11:30, 오후 1:30, 3:30
수요일 오전10시
- 3) 전체운영 소요시간 : 약 1시간40분
 - ★ 15분: 찬양팀의 찬양인도
 - ★ 5분: 영상비디오 시청
 - ★ 5분: 시작기도 인도와 강의도입
 - ★ 70분: 강의
 - ★ 3~5분: 수료자 1명 간증듣기

처음 새가족모임에 온 성도들에 대한 10분 오리엔테이션과 5주 수료하는 성도들에 대한 수료자 모임을 봉사자들의 인도 하에 따로 분리해서 한다.

이때 못 다 나눈 간증의 시간이 이어지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 속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봉사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강의내용

- ★ 제1과 :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 ★ 제2과 : 믿음이란 무엇인가?
- ★ 제3과 :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 ★ 제4과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 ★ 제5과 : 교회와 그 중요성

4. 자원 봉사자들의 사역분담

- 1) 찬양 : 강의 시작 전
- 2) 환영 : 출석부 관리, 처음 나온 사람과 수료자 파악, 강의실 안내, 교재 및 찬양집 배부
- 3) 결석자 파악 : 엽서 발송
- 4) 처음 나온 분 환영과 새가족 모임 소개 : 간식 준비
- 5) 수료자 축하와 다행방 연결 : 간식 준비

5. 자원봉사자 관리

매주 기도회와 1달에 한번 토의 및 기도회

6. 담임 목사와 만남의 시간 : 학기별 혹은 분기별 수료자 전체 모임 1회

강의II. 한국 교회 목회 임지의 현실과 작은 교회들의 살 길

박 현식 목사 (좋은교회, 한국목회임지연구소장)

2009년 4월 28일 한국목회임지연구소를 개소하고 약 2년간 전국 700여개 교회를 방문해 보았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수천 명의 목회자와의 전화상담, 직접면담을 통해서 한국교회 목회 임지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목회 임지의 현실은 어떠한가?

I. 한국교회 목회임지의 현실

- 1) 목회 임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신학대학 졸업생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한데, 이들을 수용할 목회 임지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교회 전 교단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무임 목회자의 수가 각 교단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 2) 목회 임지의 양극화 현상이다. 현재 국내에서 목회 중인 목회자 가운데 낙도에서 월 30만원 내지 4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연 사례가 1억원을 상회하는 목회자들도 존재한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껴지는 것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수도권에서 목회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이나 낙도, 산간벽지에서 목회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도 우리의 목회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 3) 무리한 예배당 건축으로 인한 부작용의 확산이다. 필자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를 끌어들여서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들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어떤 교회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매월 이자를 지불하는 데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작은 교회들의 목회 환경은 더더욱 심각하고 열악하다. 매년 3천여 개소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분명 사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담한 목회 현실에서 작은 교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II. 작은 교회들의 살 길

- 1) 다른 교회와는 차별화된 특성 있는 목회가 필요하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인천 지역의 출석인원 5명 규모의 작은 장로교회 목사님은 거의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가 가곡, 가요, 찬송가 등을 연주할 때 빈정거림과 조소도 있었지만, 지금 이 교회는 음악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6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바로 이것이다. 다른 교회와는 구분되는 차별화된 교회, 이 시대의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 2)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단합해야 한다. 서울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소천하였다. 이 때 작은 교회 연합 모임의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1인당 1만원 걷기 운동을 전개하여 목사님의 가족에게 500여 만 원의 조의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교단과 지역을 초월한 서로간의 뗄 수 없는 끈끈한 응집력을 형성하여야만 작은 교회들이 살 수 있다.

- 3) 절대 눈에 보이는 교회 건축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예배당 건축에 목숨을 걸었다”고 이야기한 미국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무리한 건축은 결국 교회 내부의 봉괴를 초래한다. 경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목회 분야에서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이 통용된다. 작은 교회일수록 경제적인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 4) 작정 기도의 중요성이다. 목회 임지가 없어서 수년 간 고심하던 한 목사님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그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 부부가 하루 여섯 시간 이상의 작정 기도를 드렸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임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목사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강원도의 작은 교회이지만 목사님과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작은 교회의 살 길은 매일 시간을 정해 지속적인 작정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 5) 교회 자립 시까지는 생업을 가질 필요도 있다. 물론 목회자들이 성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작은 교회들의 현실은 너무나 긴박하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였다.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본 사람만이 성도들의 고달픈 세상살이의 애환을 가슴깊이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 6) 예배 장소의 공동사용 및 교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강북에 위치한 A교회는 주일 오후 2시까지는 A교회가, 그 이후로는 B교회가 한 장소를 공동으로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료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할 수도 있다. 또 건물은 협소하나 부흥이 잘 되는 교회가 있다면 건물은 크지만 교인 규모가 영세한 교회와 교단을 초월하여 지역별로 예배 장소를 교환하여 사용한다면 양 교회가 상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 7) 교회 합병, 또는 팀 목회도 작은 교회들의 살 길이다. 예컨대 A라는 교회가 5명의 출석 성도, B교회가 10명의 출석 성도, C교회가 15명 출석 성도, D교회가 20명 출석 성도가 있다면 이 교회들이 일단 교단별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출석 성도 총원은 50명이 된다. 통합된 이 교회는 탄력을 기대할 수도 있고 목회자 간에 자기 자신의 의사에 따른 팀 목회를 수행하면 교인들도 만족시킬 수 있다. 또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굳이 구분하여 차별화 필요가 없다. 사례비도 똑같이 지급받고 다만 자녀들의 숫자에 비례하여 교육비를 차등지급한다면 담임목사와 부목사 간의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통상적인 한국교회의 목회 풍토를 개혁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 8) 목회 성공 신화에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어떤 목회자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여 1년 안에 100명을 모으겠다”고 꿈꾼다 가정하자. 그 의욕은 대단한 것이나 잘못되면 자신의 목회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릇된 목회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무조건 큰 교회, 큰 예배당, 많은 교인의 숫자를 목표로 하는 성공 신화를 버리고 자신이 밭을 딛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겠다는 소망을 가져야겠다.
- 9) 매일 자신의 지역 사람들을 20명 이상 만나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영향력은 그 지역 사람들과 얼마나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그들이 신자, 비신자를 초월하여 목회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다니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자.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청취해 보자. 반드시 이러한 노력들이 큰 열매를 거두는 바탕이 될 것이다.
- 10) 빠른 정보 습득능력과 자신의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누가 먼저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입수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목회 임지에 대해서도 매일 소개되는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어떤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 필자는 30여명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200명 이상 규모의 교회 담임자로 부임하는

데 다리를 놓아주었다. 이 과정에서 느낀 바는 이 목회자가 30명 목회지에서 더 큰 그릇을 철저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더 넓은 길이 열렸다는 확신이다.

III. 목회 임지 접근 시 준수 원칙

1.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목회 임지 문제라는 것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현 목회지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반면에 교회 중직자들과의 갈등, 가정 문제, 목회 비전의 문제, 재정적인 생활의 어려움, 임지의 부재 등으로 고민하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다. 이 시간에는 탁상공론식의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 현장을 직접 방문, 목회자들과의 직접 면담을 토대로 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교회 목회 임지 문제의 현 주소와 임지 문제 접근 시 준수해야 할 원칙에 대한 고찰이다.

2. 한국 교회 목회 임지의 현황

- 1) 현재 한국 교회 목회 임지 이동 희망자는 전체 목회자 수의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 임지에서의 목회가 목회자에게 있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데, 한층 더 구체적으로 임지를 이동하려는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인간관계의 갈등, 특히 교회 중직자들 간의 불화가 주된 원인의 하나이고 또 목회자의 심리적 탈진 혹은 매너리즘에의 탐닉,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저하 혹은 상실된 상황 등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2) 목회자가 임지를 이동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열심히 사역을 하였지만 ‘이 교회에서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다.’는 확신이 들 때, 교세가 하강 곡선을 그리기 전에, 인간관계의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임지를 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은 한 번 교회가 침체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목회자가 도저히 개인의 역량으로 감당하여 극복할 수 없을 때, 목회 현장에서 계속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목회자 가족 간의 임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잦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 3)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임지 이동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인가, 전원인가, 전망이 있는 곳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 자체 예배당과 목사관을 보유하고 있는가, 교회 부채가 있는가, 혹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 목회자 사례와 자녀 교육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 이 목회지에서 내가 마음 편히 목회할 수 있겠는가 등을 들 수 있다.

3. 목회 임지 부임, 교환, 이동 시 준수해야 할 원칙

- 1) 자기 교회 교세나 현황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것. 많은 목회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교회 교세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좋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던지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는 어떤 곳에서도 결코 좋은 목회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목회자 간에는 반드시 예의가 있어야 한다. 다른 목회자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자세를 가진 목회자는 임지 연결 성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 3) 목회 임지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어떤 목회자이던지 자신의 임지를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 4) 자신이 목회 임지를 이동하려는 경우 불필요한 소문이 돌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자신이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을 떠나기도 전에 전 교인이 알게 된다면 그 어떤 교인이 자신에게 사랑을 주고 100% 신뢰할 수 있겠는가?

- 5) 전임자가 탁월하게 목회를 잘 했던 곳 혹은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던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그러한 임지에서는 교회 내에서 사사건건 전임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많아 비효율적인 마찰과 알력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나 또는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과 비난의 분위기를 종식시키기 힘든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 6) 지나치게 임지를 자주 옮겨 다니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목회자의 이력서를 살펴보니 20년 전체 목회 생활 중 무려 15번이나 임지를 이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 장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목회자를 누구인들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 7) 목회자의 은퇴는 정년 만기를 채우는 것보다는 2~3년 정도 앞당기는 것이 좋다. 이는 목회 임지가 대부분 죽인 현실 가운데 후배들에게 선배 목회자가 본을 보여 길을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8) 임지 이동 시 기도하면서 전 가족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임지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가족들의 의사를 묵살하면서까지 혼자만의 목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목회의 모습이 아니다.
- 9) 인간관계의 갈등, 스트레스에 약한 목회자들은 편안히 목회할 수 있는 임지가 가장 적합하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었듯이 목회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안이다.
- 10) 교회 부채가 많은 경우, 임지 교환 시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목회를 감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 11) 전임자가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목회한 교회의 후임자로 가게 될 경우, 교인들의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만 한다.
- 12) 농어촌·낙도에서 나와 도시에서 목회하기를 희망하는 목회자도 상당히 많다. 도시의 상가 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농어촌·낙도 임지로 이동하려 할 경우에는 출석 교인 30명 이상, 목사관이 준비되어야 임지 교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치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 13) 행복한 목회를 하려면 자신의 은사, 기질,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체질에 가장 적합한 임지에서 목회해야 한다.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입고는 골리앗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었고, 단지 물맷돌 다섯 개와 자신의 목동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승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4)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경우 전임자와 상반된 극단적인 목회는 지양하고 교회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목회에는 인간 경영의 측면도 크게 활용하기 때문에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가 반드시 잘되는 것은 아니다.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리더십이 이상적인 목회자에게는 필수적인 자질이다.
- 15) 목회자는 인간성이 좋고 의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던지 ‘통 런’ 할 수 있다. 누구나 잠깐의 인기는 끌 수 있다. 그러나 그 목회자의 따뜻한 인간미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성실함이 있어야만 오래가는 목회, 장수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

- 16) 목회자는 설교를 탁월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설교인데, 설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임지 이동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 17) 평소에 동역자 후배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고 베풀어야 한다. 목회자는 독불장군이나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그를 배려해 주고 이끌어 주어야만 임지 문제도 자연스레 열리게 되는 것이다.
- 18) 땅,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은 하나도 없어도 땅과 건물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거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똑같은 개척 교회라 하더라도 개척 멤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성장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
- 19) 의사소통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회자는 동역자나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는 소통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 20) 모든 임지 연결의 성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한 임지를 예비하고 계시며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자. 오늘부터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을 기도해 보자.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있는 목회 사역만이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와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IV. 맺는 말

지금 이 시간에도 목회임지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동역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우리 연구소는 이러한 동역자들의 고민과 아픔을 늘 함께 나누며 손길 닿는 모든 도움 드리기에 힘쓰고 싶다. 모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임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며 많은 후원과 사랑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린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 체질에 맞는 교회에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강의III. 맨 땅에 헤딩하기

(목회자 한 가정이 외지에 파송 받아 100명 넘어가기까지의 과정)

박민경 목사(충북연회·청주서지방·형제교회)

1. 형제교회를 개척 한 동기

2. 개척 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1) 개척에서 첫 성도 등록까지

2) 첫 성도에서 10명 성도까지

3) 10명 성도에서 30명 성도까지

4) 30명 성도에서 50명 성도까지

5) 50명 성도에서 100명 성도까지

3. 개척 후 힘써온 분야

4. 권면하고 싶은 말씀

1)

2)

3)

4)

5)

강의IV. 이렇게 전도했다

김두현 목사(호남선교연회·전남서지방·진도교회)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로써,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the Reign of God)가 도래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간(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누구든지, 속죄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영생을 받는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다(김영봉). ‘전인적 구원’

교회의 사명은 복음화, 인간화, 사회화이다. 예수께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쓸데없는 것 기다리지 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하고 말문을 막지 않으셨다. 교회는 현실세계의 인간화, 사회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궁극적 관심은 복음 전도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화, 사회화는 세상의 다른 집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복음화는 그렇지 않다. 즉, 복음화는,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해야 하는, 고유의 사명인 것이다. 복음전도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전 2:4)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인간의 죄악성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 전도자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

①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②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 성령이 전도의 주체이시므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아서 전도다운 전도를 할 수 있다. ‘성령의 세례’ (행 1:5)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수 믿고 물세례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구원 받은 것(칭의) 이상의 체험이 필요하다.

③ 증인의 자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행 4:20)

빌립이 나다나엘에게(요 1:45),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요 4:39), 거라사의 귀신 나간 사람이 온 성내에(눅 8:39)

→ 인도하여 데리고 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

④ 기도해야 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행 4:29~30)

⑤ 일단 가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 전도는 은총의 수단이다. 복음 들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⑥ 할 말은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눅 12:11~12)
베드로와 바울은, 공의회에서, 회당에서, 불잡힌 상황에서도, 적절한 말로 복음을 전하였다.

⑦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행 5:42)

→ 주의 : 산발적 전도

⑧ 전도하면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행 6:7)

⑨ 분명한 신앙적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 다른 종교들도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행 4:12).

⑩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요체는 사랑이다.

⑪ 복음에는 반대와 거부, 박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행 19:2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눅 12:53)

⑫ 생계유지는 주님께 맡기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어 자급하면서 선교를 하려다 보니, 안식일 외에 전도를 할 수 없었다(행 18:4). 주님께서는, 마계도냐에서 현금을 보내도록 하셔서, 바울은 그 일을 중단하고 전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

◆ 진도교회 전도 사례

● 진도의 특성

- 주민들 성격이 거칠고 외지인에 대하여 배타적이다. 미신, 무속이 성행하고 있다. 이단(안식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등)이 많다. 교회에 대한 남자들의 반대와 거부정서가 만연해 있다.

● 부임 당시 교회의 특성

창립 이래로 성장하고 못하고 있었다. 좁은 주택가 골목,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건물이 너무 낡고 지저분했다. 그러나 초등학교가 150m에 인접해 있다.

☞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분석하라.

● 처음 시도한 것

기도, 교회당 리모델링, 인사와 흥보

예배, 성경공부, 속회

그러나…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도해 주었다.

☞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약 2:2-4)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눅 14:21)

● 전도를 시작했지만…

☞ 과유불급

● 부흥회가 계기였다(2008년).

●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다.

● 비전교회 프로젝트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2009년).

· 어떻게 진행했나? 어른 전도, 학생 전도, 어린이 전도 ※ 예수님 전도방법

· 노방전도의 결과는?

· 전도 대상자 : 교인들 지인, 이웃 중에 어려운 이들, 이사 온 가정, 부모님들, 잃은 양

※ 주님께서 필요한 만남(구도자들)과 재정과 아이디어를 주셨다.

■ 교회가 살아 있고 역동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알리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 전도지, 전도용품, 교회

■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 아이들 전도의 경우 아침에 전단지를 나눠준다. 전단지를 디자인하여 프린터(HP 오피스젯 프로 K8600, 잉크는 네텐 무한잉크 사용)로 잉크젯 전용용지에 출력하여 오려 만들(팝콘, 슬러시, 아이스크림). 오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간단히 교회를 알리고 교회에 올 것을 권유한다. 이때 어린이찬양을 틀어놓고 X-배너를 설치한다.

■ 인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거룩한 온기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

- 속회, 예배, 찬송, 설교, 사랑, 역동성

■ 다양한 대상에 맞게 전도 접근법을 다르게 하라.

- 예수님이 전혀 다른 두 대상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른 내용으로 대하셨다. 복음은 하나이지만, 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 스타일의 전도 방식을 개발한다.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 성경을 사용하여, 메시아이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함을 증명해 보려고 하였다. 아덴에서는, 이방인 철학자들에게 그들의 전통과 글을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전도해 보려고 하였다. 데살로니가와 베로아와 아덴과 고린도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여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예시 : 부광교회 어머나 전도법

어린이 : 재미있고 활기차게, 청소년 : 친구처럼 들어주면서

- 별도의 소그룹이 있어야 한다.

-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

게으름, 무질서함, 수면시간, TV, 취미생활, 인터넷, 온라인게임, 쇼핑, 작심삼일, 패배주의, 비관론, 두려움, 쓸데없는 분노

☞ 거룩한 습관을 들이라. 좋지 않은 습관은 버려라. “끌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 전도하면 사랑하고 품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주님과 가까이하게 된다. 전도의 악성이 생긴다. 설교가 살아나게 된다. 간증하게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강력해진다.

- 어른들 전도할 때 유의할 점

-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 최대한 예의를 갖추라. 공공장소에서 크게 외치는 등의 방법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거부감을 주고, 믿는 이들에게는 주눅 들게 한다.
- 구도자를 만나게 되면 깊이 대화하라.
- 결신을 시켜야 되겠다고 조급해 하지 말라.
- 종교나 생각을 비난하지 말라.
-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 거부당해도 좋은 인상을 남겨라.
-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수다를 떨지 말라.
- 대화법을 익혀두면 좋다.
- 인도되어 나온 이에게 일대일 또는 모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강의V. 발 마사지 전도법

전대박교수(한영대학교)

강의VI. 패러다임전환 목회

박상길 목사(충청연회 · 예산서지방 · 효교교회)

- 목 차 -

I. 들어가는 글

II.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목회

III. 한국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

1. 성장 중심의 목회

2. 신앙 중심의 목회

3. 교회 중심의 목회

4. 조직 중심의 목회

IV. 목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 사례

1.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교회로(강원도 영월의 작은 농촌교회)

2. 전통적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100년 된 교회)

V.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제안들)

1. 다원화, 다문화 된 회중을 위해 영감있는 예배를 디자인하라!

1)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의 균형 있는 예배

2) 블랜디드 워십(조화된 예배/Blended Worship)

3) 이머징 워십(떠오르는 예배/Emerging Worship)

4) 다문화 예배(이중 언어 예배)

5) 레버린스 기도(labyrinth prayer/ 미로를 통한 내적 영성)

2. 역동적인 전도(복음) 중심형 교회를 만들어라!

3. 삶을 변화시켜 사람을 세워가는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라!

4. 새로운 '셀 교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보라!

5.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회

(세상과 소통하는 목회, 대형교회와 교류하는 목회)

6. 평신도 참여 목회

I. 들어가는 글

패러다임이(Paradigm)란 말은 본래 토마스 쿤(Thomas Khun)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1962)에서 과학의 이론형성에 원용되는 ‘틀과 개념도구’ 등을 총괄해 부르는 말로 사용한데서 유래한다. 즉 패러다임(Paradigm)은 어떤 한 시대의 지식인들의 합의로 형성된 지식의 집합체들을 말한다. 쿤에 따르면 세계에 대한 인식은 패러다임을 통해서 가능하다. 곧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세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목회 패러다임이란 바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생각하고 목회를 보는 일종의 ‘공통적인 인식의 틀’ 이라 할 수 있다. 즉 목회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목회행위를 보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 행하고, 또 반성할 때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인식의 틀이요, 행동의 근거인 것이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한국교회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 극심한 정체현상, 교인들의 이탈현상, 사회의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무엇일까? 현재의 인식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범위는 사실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예배, 교육, 소그룹, 전도와 선교, 교회 행정, 문화사역, 사회봉사 등.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필자가 이론을 바탕으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경험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다룰 것이다.

이것을 위해 먼저 급변하는 한국사회와의 현실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성격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주제를 다룰 것이다.

II.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목회

오늘날 사회는 다양성을 지니고 무서운 속도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다. ‘제3의 물결’을 쓴 앤빈 토플러나 ‘거대한 새 물결’의 저자 나이스비트 같은 학자들은 그들의 책을 통하여 미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 속해 있는 교회는 그 같은 변화의 추세를 외면할 수 없으며 그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현상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교회를 더 이상 옹호해 주지 못하게 만들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특징은 자기 사랑 증후군에 걸려 있다. 그러다보다 소위 고독의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

둘째, 현대사회는 권위주위를 거부한다. 소위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셋째, 현대 사회의 특징은 정보화 사회이다.

넷째, 현대사회는 다원화 및 전문화되어있다.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교회가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현대사회의 특징은 다문화시대이다. 한국에 이주해 온 다문화 인들의 사회진출과 적응, 그리고 이에 따른 교회의 대처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여섯째, 심각한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이다.

일곱 번째, 다음 세대는 고정된 틀과 권위주위를 거부한다. 다음 세대는 무조건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심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즉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처럼 교회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 여성의 사회 진출과 모든 일에 민주적 절차를 요구한다.

아홉 번째, 현대사회는 교육의 혜택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어떠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은 선교 역사의 기적으로 불리 울만하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교회성장이 1990년대 후반기부터 멈추어 버렸고 많은 교회들이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늘고 있으나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면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그 위상마저 흔들거리게 되었다.

해마다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들 그러나 포화상태의 교회, 치열한 신도 경쟁가운데 부실하여 문을 닫는 교회가 일 년에 수백 개에 이르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성장하는 교회도 수평이동에 의해 성장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교회는 정체 혹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교회도 적자생존과 자연도태라는 진화 원리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원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와 변질의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교회가 변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복음을 변질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목회영역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III. 한국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

1. 성장 중심의 목회

지금까지의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첫 번째 특징은 ‘성장 중심’의 목회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교회에서 행해 지던 다양한 프로그램들 즉 부흥회,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기도회 등은 장기적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 속에서 실행되었다. 한국교회의 성장 중심 목회 패러다임이 가져온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우선 교회의 계층화, 양극화가 이루어 졌다. 교회의 도, 농간의 계층적 양극화 외에도 도시 자체 안에서도 많은 교회가 새로 개척되었으나 인적 물적 자원에서의 열악성 때문에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계층적 양극화는 교회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목회자들 사이의 자부심과 자만심, 좌절감과 열등감을 심어 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성장 중심의 목회는 성장 제일주의의 가치관을 확산 시켰는데 이것은 팽창주의와 업적주의와 결합되어 교회 내에 물량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조장하게 되었다.

교회 간, 교파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도 확보에 열중하여 교회의 본질이 손상되고 대 사회적인 교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신앙 중심의 목회 : 수직적 차원 강조의 목회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목회는 철저하게 신앙훈련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에는 두 차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행한 수직적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 사랑이다. 믿음은 하나님 신앙과 이웃사랑의 두 가지로 표현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 신앙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하나님 신앙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교리적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기도생활과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며 헌금도 잘 내는 것이었다. 신앙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이 가져다준 결과 역시 대단한 것이었다. 적어도 수직적인 하나님 신앙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교회에서 철저하게 신앙에 대한 훈련을 받은 한국교인들의 종교성은 다른 종교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다.

그러나 신앙중심의 목회에도 많은 역 기능이 존재한다. 우선 신앙중심의 목회는 하나님 신앙에만 집착하게 만들어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을 소홀하게 만들었고 사회의 빚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특히 교회의 사회봉사(diakonia)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사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공허한 믿음을 가진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낸 셈이다. 또한 신앙중심의 목회는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다보니 사회구원의 책임을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관심과 혹은 사회참여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신앙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형태로 변질 될 수 있다.

3. 교회중심의 목회

한국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교회에 중점을 둔다. 교인들의 신앙적도가 얼마나 자주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느냐로 평가되었다. 그러다보니 교회중심목회 패러다임의 가장 큰 특징은 개 교회주의이다. 개 교회주의란 교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며 교회내의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개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 교회주의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가족주의적인 집합주의 성향과 결합되어 ‘우리’라는 동질집단에 대한 충성심의 강조와 이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강한 결속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유달리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개 교회주의는 개 교회의 성장을 최대 목표로 두게 되었고 이것은 양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개 교회 중심의 목회는 교회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교회 간, 교단간의 일치와 연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4. 조직 중심의 목회

한국교회는 발전을 위해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하고 그 조직을 토대로 하여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회의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남녀 선교회가 있는데 남녀 선교회는 연령별 조직으로 봉사와 전도, 기도회 성경공부 등을 경쟁적으로 수행해왔다. 속회 혹은 그 밖에 소그룹은 주중에 모여 성경공부와 교제 그리고 기도 등으로 신앙성장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켜 왔다. 이외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연령별로 모인 교회 학교이다. 교회학교 조직은 예배와 교육과 친교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회에는 여러 영역의 실무를 관장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교회조직의 구성이나 그 결정권과 주도권은 주로 장년 층 특히 교회의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교회직분은 위계 서열적인 권위구조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조직의 프로그램은 주로 오래된 기성 성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별 교회 안에서 조직 구조는 대체로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교회의 조직은 매우 관료적이고 위계 서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함께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은 그 적응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목회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최근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고 있다.

IV. 목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 사례

자연적 교회 성장(NCD)으로 널리 알려진 크리스찬 슈바르츠는 복음전도에 있어서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보다 16배나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교회 성장의 핵심적인 8가지 질적 특성(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중 7가지는 작은 교회가 소위 많은 수를 자랑하는 큰 교회보다 건강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나은 부분은 영감 있는 예배뿐이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기존의 교회들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1.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교회로(강원도 영월의 작은 농촌교회)
2. 전통적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100년 된 교회)

V.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제안들)

18세기 영국 교회가 침체되어있던 시기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운동이 소위 ‘메소디스트 운동(Methodist Movement)’이다. 특히 영국 사회에서 감리교의 속회(class) 조직과 반회(band) 조직, 그리고 평신도 설교자의 훈련과 활용은 당시 일대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날 우리의 시점에서 이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웨슬리의 시대는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패러다임 전환이었나 평가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제 정체상태에 놓인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은 질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 성장을 꾀한다는 것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과 복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 해 둘 사실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이 틀렸거나 더는 쓸모없는 형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발판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성장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은 무분별한 팽창주의와 외형적 성장주의를 지양하는 ‘성숙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신앙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은 ‘삶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리 중심’의 목회는 ‘실천 중심’의 목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 ‘교회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은 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가 초래하는 여러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이 ‘지역사회중심’의 목회 패러다임과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회 속에서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조직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은 ‘인간중심’의 목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조직은 일의 효율성과 능률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때로는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직이란 이름 아래에서 사람의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은 모든 교인 하나 하나를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사람을 위해 조직이 있는 것이지, 조직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구현하는 목회 형태이다. 또한 조직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 속에서 발생한 권위주의적인 요소도 사라져야 한다.

이제 필자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몇 가지 경험들을 나누고자 한다.

1. 다원화, 다문화 된 회중을 위해 영감있는 예배를 디자인하라!

현대는 다양성, 다문화 시대이다. 교회 안에서 획일화 된 예배가 아니라 여러 계층이 어우러지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예배를 시도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간신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심에 있으며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배가 죽어 있는 교회, 즉 예배에 실패한 교회는 어떤 성장도, 어떤 성숙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의 균형 있는 예배

세계 교회의 예배와 비교할 때 한국교회의 예배는 설교중심의 반쪽자리 예배였다. 예배의 두 날개 즉 말씀의 예전과 성찬 예전을 퍼포먼스와 함께 영감 있게 실천하라.

2) 블랜디드 워십(조화된 예배/Blended Worship)

전통과 현대 변화의 조화 및 긴장된 모습을 잘 드러내는 예배이다. 예배 집례자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다양한 예배 흐름들을 섭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엄한 예전적 예배, 전통적 개신교 예배, 전형적인 복음주의적 예배, 경배와 찬양 위주의 카리스마적 예배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조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전적 예배 전통의 장점을 수용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교회가 생겨나고, 설교를 회복하고 있는 예전적 교회, 카리스마적 전통의 찬양을 부르는 동방교회 등 서로 다른 예배 전통이 있는 예배 스타일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며 영적 성숙을 꾀하고 있다. 블랜디드 예배는 조화를 추구하는 창조적인 예배로 아이부터 기성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기획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입례 때 아이들이 예배를 알리는 메신저로 등장하며 참여하여 성찬으로 마무리 짓고 회중이 참여하는 예배이다.

또한 예배의 예술과 상징을 강조하고 교회력과 성례전을 통한 내적 치유 등을 중요시한다.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회중들은 교회 안에서의 미적 가치를 통해 평안함을 찾고자 한다.

3) 이머징 워십(떠오르는 예배/Emerging Worship)

Emerging Worship(떠오르는 예배)이 무엇인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Emerging Worship은 이러한 새로운 세대를 섭기기 위해 고안된 예배 형태라 할 수 있다.

Emerging Worship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전통으로의 회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Emerging Worship은 예배 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초대 교회를 연상케 하거나 고대의 신비로움을 연상케 하는 고대의 미술 작품, 정교회의 이론, 예배 당 정면의 십자가와 많은 초와 향 등 기독교 상징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회중은 Emerging Church

에서 현대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미지를 통한 경건함과 거룩성을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의 ‘구도자 중심 예배(Seeker-sensitive, 국내의 열린 예배)’ ‘에서는 불신자나 교회에 반감을 갖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하여 장시간의 찬양, 종교적 상징물, 장시간의 기도, 성찬식 등과 같은 것을 치워서 구도자(비신자)들이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드라마, 동영상, 주제별 설교를 제공하는 예배였다. 하지만 포스트모던시대에 이 형태의 예배는 이미 세상 문화와 다른 것이 없고 때로는 뒤쳐지기 때문에 비신자들에게 흥미를 점점 잃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Emerging Worship은 구도자 예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전통적인 기독교로의 회귀 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천국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이다. 구도자 예배(Seeker-service)에서 제거했던 영적인 요소 즉, 장시간의 예배, 종교 상징물, 고대의 십자가, 초, 향, 성찬식, 장시간의 기도, 장시간의 성경 읽기 등, 영적인 신비감과 종교적 거룩성을 다시 부각시켜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구도자 중심 이후의 예배(post-seeker-sensitive)라 할 수 있다.

Emerging Worship의 강단은 오직 십자가와 그와 관련된 상징물만 보일 뿐이다. 찬양 인도자(사회자)나 설교자는 앞에 서지 않으며 주로 옆쪽에 앉아서 회중과 함께 예배 하며 목소리만 인도한다.

Emerging Worship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회중의 경험과 참여에 예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설교는 회중이 십자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설교는 말 이외의 설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크린 영상과 사진을 말씀과 결합하여 보여주거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맨발로 모래를 걷게 하거나 위십이나 미술 공연도 가능하다. 회중은 예배 준비 팀에 의해 디자인 된 순서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과 재능을 가지고 예배의 과정에 동참하며 예배를 만들어 간다.

Emerging Worship에서는 기존의 질서가 무시되고 목적만 맞는다면 새로운 시도들이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곁으로 보면 다소 무질서해 보일 수 있고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다. 기존의 회중이 앉아서 듣는 것을 좋아했다면 Emerging Worship의 회중은 적극적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 느끼고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한다. Emerging Worship은 공동체의 견해와 팀 사역을 중요시 한다. 다시 말해 예배의 권한을 회중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4) 다문화 예배(이중 언어 예배)

이제 도시간 농촌이건 예배 공간 안에 외국인 노동자나 다 인종이 앉아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문제와 예배 문화의 차이이다. 설교를 영어나 다중 언어로 선포하기 어렵더라도 주보나 설교본문을 이 중 언어로 제작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 예배를 기획하여 앞으로 미래 다문화 사회를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

5) 래버린스 기도(labyrinth prayer/ 미로를 통한 내적 영성)



2. 역동적인 전도(복음) 중심형 교회를 만들어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에큐메니칼 세미나에서 특강을 맡은 정희수 감독(미국 연합감리교회)은 “교회의 현실에 대한 신학적 논의”에서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존 성도들을 유지(Retention)하기 위해 쓰는 시간보다 새로운 성도를 전도(Recruitment)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고여 있는 물에 앉아 안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멈추지 말아야할 교회의 절대적 사명 중 하나는 복음 증거이다. 복음 증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회중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제시가 된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로 세움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증거(전도)는 필수 사항이다.

1) 전도의 방해 요소

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불신, 경제적, 교육적 원인으로 인한 이주와 인구 감소, 무속과 불교 신앙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강한 결속력, 교회에 대한 편견,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음, 새로운 신앙에 대한 두려움, 종교는 모두 동일 하기 때문에 뭘 믿어도 상관없다 등.

교회 내적으로는 전도를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여긴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 전도를 한번 해보고 거부당하면 전도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혀 있다. 전도 외에 교회 내에 바쁜 일이 너무 많다. 전도는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체계적인 전도, 양육, 사역 훈련 시스템 등이 부재하다.

2) 전도 동기 부여 훈련

- ① 전도에 대한 부담감도 거룩한 사명이다(요나 3장).
- ②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라(마 28:16-20, 딤전 2:4).
- ③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공동체를 만들라(요 1.12, 요 5:24).
- ④ 구령열에 불타는 공동체를 만들라(겔 37:1-10).
- ⑤ 전도하는 날을 고정하라.
- ⑥ 체계적인 복음메시지를 훈련시켜라(벧전 3:15-16).
- ⑦ 전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장소임을 가르치라(고후 13:5).

3) 다양한 전도 방법 : 전도 방법의 경험은 다양하지만 정답은 없다!

- 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지역사회의 정보를 수집하라.
- ②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의 토양을 철저히 분석하라.

즉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의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등을 분석해야 한다. 이 말은 현재 섬기는 교회가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인들의 영적 상태, 혼신 정도, 새 신자 정착부터 양육 훈련에 이르는 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며 전도에 대한 확신과 복음 증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준비되었는가? 하는 질문과 분석이다.

그리고 최소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단점 극복 전략). ‘최소치 전략 세우기’는 현재 우리 교회의 장, 단점을 파악하여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최소치 요소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슈바르츠 목사는 그의 저서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8가지 질적 특성이(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주장한다. ‘최소치 전략’이란 교회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8 가지의 질적 특성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가장 접수가 낮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때 교회의 질적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③ 농촌지역 전도 방법들 : 빨품전도, 일터공략 전도, 도시 교회와 연계한 문화 행사(콘서트)나 지역 주민 돋기 수련회 유치, 미용, 의료, 사진 봉사를 통한 전도 등
- ④ 도시지역 전도 방법들 : 아파트 전도, 상가 전도, 시장 전도
- ⑤ 일대일 전도 : 관계 전도, 전도지(사영리 등)를 통한 전도
- ⑥ 온 교인이 참여하는 집중전도 : 태신자전도운동, 새생명축제, 해피데이전도 등
- ⑦ 전도대 운영

3. 삶을 변화시켜 사람을 세워가는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라!

물위에 평화롭게 노는 오리를 보라. 그 평화로움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물 아래 오리의 발은 물 사이 없이 움직인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사람을 세워가는 유기적인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 성도구성원을 살핌으로 첫째로 영적 수준에 따른 그룹사역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가 실수한 부분은 교회 안에 믿음이 적은 자,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있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사람을 다 따라오게 하였다. 교회는 영적 수준에 맞는 소그룹을 세워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단계적인 소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관심과 삶에 적용된 소그룹사역이다. 이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된다. 교회는 이젠 장애아들은 둔 부모들의 모임, 미혼모들의 모임, 재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실버성도를 위한 재교육, 내적치유팀, 평신도 선교를 준비하는 모임 등 다양한 소그룹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삶에 적용될 성경공부와 기독 공동체의 삶, 상담적 목회가 형성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젠 숨어있던 성도들이 다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로 사회적 도전에 따른 소그룹 교육을 해야 한다. 성도들은 세상 안에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하지만 교회는 이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으로 아니면 교제로 끌어주지 못하고 있다.

소그룹 사역을 할 때 기준의 틀에 매이면 소그룹 사역은 실패를 한다. 예를 들어 감리교 속회는 평생 교육의 장이다. 해마다 속회의 변화를 주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가 이탈하고 시험 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이유는 단 한가지다. 작은 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 소그룹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해서이고, 소그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이다. 농촌이건 도시건 이것은 동일한 문제이다.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한다면 과감히 깨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도전은 작은 교회일수록 유리하다.

1) 운영방법(필자가 경험하고 운영하는 소그룹의 실례)

- (1)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의 소그룹 운영(학생부 포함), 소그룹의 목적은 분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6-12명을 넘기면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소그룹 만들기나 셀그룹 관련 서적, 소그룹 인도법, 소그룹 리더 세우기에 관한 서적들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새 가족반(정착: 5주 과정), 일대일 제자양육과정(16주: 속회 편입), 제자 훈련(1년: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훈련), 전도소그룹, 예배소그룹, 문맹자를 위한 소그룹, 직분자를 위한 소그룹, 남자별 소그룹, 청장년 소그룹, 신앙적 수준을 고려한 소그룹.

2) 운영계기

- ① 소규모 교회의 약점인 정착부터 양육, 훈련, 사역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전도를 하고 예배만 강조했기 때문에 정착과 신앙 성숙에 많은 실패를 겪음.
- ②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었고 성숙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였다.

- ③ 기존의 지식전달과 설교 위주의 속회 구조만으로는 신앙 성장과 목적 있는 전도 소그룹으로 이끄는데 한계를 느낌(속회 구조와 방법의 변화 추구).
- ④ 도시로부터 이주해온 자들의 수용 문제.
- ⑤ 교회 안의 다양한 요구와 지식층의 증가로 인한 목적 있는 소그룹 운영 필요.

3) 제자양육, 훈련의 목적

제자 양육이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돋는 초보적인 모든 성장의 과정을 말한다.

제자 훈련이란 양육을 거쳐 영적으로 강건하여 다른 사람들을 돋고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고급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돋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엡4:13 / 히5:12-14 / 히6:1-2). 즉 성숙이다. 성숙이란 말은 정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활동 즉 사역, 삶의 전도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4) 제자 양육, 훈련의 효과

- ① 신앙적 수준에 맞게 성장시킬 수 있다(속회 구조를 약간 탈피하여 리더를 세움).
 - 새 신자 소그룹, 문맹자를 위한 소그룹, 직 분자를 위한 소그룹, 남자별 소그룹, 청장년 소그룹, 신앙적 수준을 고려한 소그룹 등
- ②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 성경 쓰기와 읽기를 강조한다.
- ③ 성경 구절 반복적 암기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 ④ 강한 결속력과 결석자가 없다.
- ⑤ 영성의 강화와 성령체험 :

제자훈련이 목적은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나눔과 고백, 하나님 체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어느 누구도 말씀에 대한 반응을 고백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 단 양육자(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요가 아닌 양육자의 기도로 준비된 진행 속에서만 가능하다.

- ⑥ 헌신과 참여, 순종을 가르치는 설득력이 강하다.
- ⑦ 목적 있는 소그룹별 전도가 가능하다.
- 특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전도에 대한 이야기와 소그룹에 초청할 대상자 정해 놓고 기도함으로 다양한 연령, 성별로 소그룹 전도가 가능하다.
- ⑧ 삶의 실천을 강조하여 자연스런 전도로 이어 진다.
- 매주 제자 훈련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구원 받은 자는 복음을 증거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 나온지 1년 됐고 제자양육 3주 만에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해온 성도도 있다.

4. 새로운 '셀 교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보라!

(농촌교회에서 도시지역에 셀 교회 운영 실례)

셀 교회 패러다임의 전환은 앞서 교회 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소그룹 운영과 차별을 뒤에서 이해해야 한다.

사실 감리교 속회나 제자훈련, 알파, 셀, G12 등을 한 단어로 묶자면 '소그룹' 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필자가 말하는 '셀 교회'는 기존 소그룹과 구별을 두자면 교회 밖의 작은 교회 즉, 개척 교회라고 정의하고 싶다. 사실 셀 교회는 대단한 모험과 도전, 목회자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건물과 대그룹 예배 의식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친밀한 나눔과 세움을 찾아보기 힘이 들다. 근대 셀 교회 운동의 아버지인 랄프 네이버는 그의 근작 '셀교회 지침서'에서 말하기를 "의사소통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공동체는 오직 소그룹들을 통해서만 가장 온전한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소규모 셀 그룹을 15명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하였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대그룹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 관리가 아니라 기독교 기초공동체로 교회 안의 교회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1) 셀 교회와 전통교회의 차이

지난 20년간 세계 각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셀 그룹 교회들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의 재구성과 같은 방법과 도구상의 변화가 아닌, 교회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이를테면 교회의 구조와 조직 그리고 교회 생활 그 자체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교회의 본질에 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의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새로운 교회론의 대두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셀 교회에 대해서 들었고 어떤 이들은 그런 교회에 참석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에 셀 그룹이 있다고 해서 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교회들은 셀 그룹이 기존의 다른 교회 프로그램에 덧붙여지는 정도인데도,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셀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존의 프로그램에 셀 그룹이 추가된 교회와 셀 교회는 전혀 다른 것이다.

셀 교회와 전통적인 교회의 주된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은 활동과 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셀 교회는 사람 중심이다. 그 교회의 초점은 셀 멤버들과 비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전통교회는 건물 중심이다. 대부분의 교회 프로그램은 교회 건물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셀 교회는 공동체 중심이다. 셀 교회는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 등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셀 교회는 교인들을 지역공동체 속으로 셀 멤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셀 멤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섭길 수 있는 곳으로 흘러져서 사역할 수 있게 한다. 셀 교회의 크기는 건물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전통교회에서 복음전도는 그 교회를 주변으로 계획되어진다. 그러나 셀 교회는 셀 멤버들로 하여금 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립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이 일하고 머무는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며 그 곳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셀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것보다는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더 강조한다. 셀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셀 그룹 사역을 통해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를 조직한다.

전통교회에서는 많은 조직들과 프로그램, 그리고 모임들이 복음전도에 대한 가장 큰 방해 요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종종 전통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으며 가장 현신적인 교인들은 그들의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교회를 오가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데 보내버리고 만다. 관계를 맺으며 복음전도를 행할 수 있는 의욕적인 교인들이 그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단순히 전통교회 구조에 셀 그룹을 첨가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셀 교회는 회원들이 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복음전도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전통교회를 셀 교회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일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아마 교회 구성원의 일부는 떠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접근은 교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룹과 함께 새로운 셀 교회를 시작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셀 교회를 지향하면서 여전히 많은 셀 교회들이 급성장한 것만을 보고 교회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전통적인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장은 자연적인 산물이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진정한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2) 셀 교회의 운영 : 농촌교회에서 도시 지역에 파송한 셀 교회 운영 실례)

필자가 두 차례 경험하는 농촌 교회의 고정 관념은 그 지역을 벗어나면 큰 일 나는 줄 알며, 내 지역 교회를 우선으로 한다. 지역에서 5분만 떨어져도 멀다고 느끼고 오기를 꺼린다. 이런 고정 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필자가 시도한 소그룹은 소위 '셀 교회 모델'이다.

필자가 농촌 교회로부터 약 20-30분 떨어진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은 먼저 문화적 차이, 교육적 차이, 인식의 차이, 대화의 차이가 분명하다. 더욱이 바쁜 도시인들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힘들며, 더욱이 30분 떨어진 농촌 마을까지 찾아 들어와 기존 신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속회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소위 전도된 사람을 리더로 훈련시켜 도시 지역의 작은 교회, 즉 '셀 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셀 리더에 의해 모여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실천하게 하는 훈련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전도자가 되어 주일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 받고 있다.

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부분인 셀 그룹은 먼저 자신의 영적 오이코스(oikos는 '권속', '가족'이라는 헬라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적 오이코스란 자신이 살아오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얻은 영적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소그룹은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기존의 신자들을 훈련시켜 제자를 삼는 것이며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 친지, 이웃을 오랫동안 기도하며 관계를 통해 전도하여 그 소그룹 안으로 끄는 형태이다.

자신의 영적 오이코스들이 4-5명으로 늘어날 때 이들과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소그룹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② 인원이 12명을 넘을 때 개척자는 그동안 훈련해온 리더를 세워 소그룹을 둘로 나누고, 또 다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오이코스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 소그룹 셀로 인도하고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그룹이 3-4개로 늘어나게 될 때까지 건물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가정의 조금 넓은 거실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셀 연합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 그룹의 연합과 교회 창립의 비전을 다질 수 있다. 이런 셀 연합 예배는 꼭 주일이 아니어도 되며(한국교회에서는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함) 장소는 가까운 선후배의 교회 공간을 빌리거나 아니면 적합한 공간은 일회적으로 임대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비공식적 예배는 몇 명이 모이든지 십자가가 달린 건물 안에서 매주일 예배드리는데 익숙한 목회자로서는 이상한 접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빨리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유혹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주일예배를 일찍 드리기 시작하면 할수록 초기 소그룹과 개척자가 가진 전도적 노력을 둔화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소그룹을 통한 교회 개척자들의 한결 같은 보고이다.

③ 마지막으로 소그룹이 5-7개 이상으로 번식하고 비공식적인 예배가 보다 빈번히 드려질 때는 드디어 공식적인 주일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인원이 60-80명이 될 때까지 주일예배를 시작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전도와 양육, 그리고 리더십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이고, 다음 이유는 에너지가 주일예배를 준비하는데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생각해 보라. 목회자가 주일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기타 예배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

보하는가! 이 수준에 왔을 때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이미 교회는 한 두 사람의 목회자의 생활비와 웬만한 건물을 임대하는데 힘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교인들이 있어서 어엿한 교회로 자리 잡는데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 무엇 보다 강력한 것은 이러는 과정 속에 이 교회는 건물 중심, 교역자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 생활이 소그룹 중심, 가정 중심, 평신도 중심, 사역중심의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5.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회 (세상과 소통하는 목회, 대형교회와 교류하는 목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열려져야 한다. 세상에게 말을 거는 목회, 그것이 21세기 한국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개방 목회의 핵심이다. 교회 간판을 하나 걸 때도, 교회 주보를 디자인할 때도,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 언어나 상징기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교단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세상의 언어로 번역된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할 때가 왔다. 개교회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동일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세상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다른 교회, 다른 교단과 대화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과 대화할 수 있을까. 정기적인 토론회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한국 기독교 내부의 대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게 말을 걸 준비를 해야 한다.

주의 봄 된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내진 존재이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섬김을 위해서 교회는 그 건물을 과감히 개방함으로 봉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주차장의 개방, 청소년을 위한 야간 학교 개설 및 독서실 운영, 지역 시민들을 위한 시사, 경제, 정치, 문화 등의 강좌 개설, 영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소 운영 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주최가 되어 주민 경로잔치나 체육대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의료 전문인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영세민들을 위한 무료진료 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도시교회 청년이나 청장년 수련회를 유치하여 낮에는 바쁜 농촌의 일손을 돋거나 매일 저녁 식사 대접이나 문화 행사(드라마, 음악회, 연극상영)에 초청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와의 거리를 좁히게 하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하게 한다.

6. 평신도 참여 목회

21세기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신도 참여 목회로서 목회적 실천이다. 이전의 목회에서 평신도는 목회자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협력자였으나 미래 목회에서는 목회자와의 동등한 관계에서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평신도들을 목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목사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하여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답이 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과 사역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도들 스스로 자신도 목회 사역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평신도를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는 교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둘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평신도를 고정된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관계를 보고 이루어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 간에 건강한 관계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구체적인 의사 결정이나 결과를 신경 쓰기보다는 평신도들이 자

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온 교회 성도들이 공감하고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일치가 있어야 한다.

넷째,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함에 있어서 목회자는 삼각관계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 성도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는 역효과를 예상하고 이 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섯째,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할 때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양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평신도 사역은 개교회적인 봉사자들을 양육하는데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 평신도 사역은 교회의 디아스포라적 사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모이는 교회에서 단련된 평신도의 신앙적 헌신과 증언이 그들의 주중의 교회인 가정과 직장에서 평범한 삶을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함에 있어서 교회의 흩어짐의 사역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강의VII. 현장 견학 (복지목회)

이건열 목사 (충청연회 · 온양서지방 · 도고중앙교회)

사회복지 목회

도교중앙교회를 중심으로

01. 사회복지 운동의 필요성

목회설악

| 성서적 근거

|| 역사적근거

||| 미래의 전망

1) 성서적 근거

구약

- : 구속자적 관점 / 약자에 대한 관심(출 22:21-27)
- : 레위기 제사법 관점 / 희년제도(레 25:10)
- : 신명기 /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신 14:29)
- : 선지자들의 관점 / 빙자들의 하나님(사 41:17)

신약

- : 누가복음의 사회적 관점 / 약자의 복음
- : 예수의 공생애 활동 시작 / 뉴 4:14-19
- : 인류심판의 판결 기준 / 마 25:31-46

2) 감리교 역사적 근거

하나

웨슬리의 목회

•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 * 사회구원/ 과부를 위한 구빈원
홀로된 노인을 위한 감리교의 집
걸인들을 위한 나그네 동무회 등
- * 모금운동을 위한 여행

들

초기 한국교회의
사회선교

• 초기(구한말) – 교육과 병원

• 일제시대 – 맹인, 고아, 결핵퇴치 운동

사회신경 제정(1930년)

• 해방이후 – 전쟁미망인, 고아, 농촌계몽 사회관, 신용조합 등

3) 전망



02. 사회복지 실천 방법

▶ 도고중앙교회를 중심으로 ...

1. 철학 정립과 공유
2. 사회복지 전문지식/ 전문가 확보
3.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 지역욕구 파악
4. 지속적으로 실천/ 중단?
5. 실적을 축척/ 수치화
6. 투명성 확보
7. 특화사업

1) 사회복지목회의 미션(Mission) |



사회복지 목회의 비전과 가치

미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

비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선교공동체

약자 돌봄을 통한 복지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공동체

가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인간 존중

더불어사는 세상

03. 도고중앙교외 운영 기관

1 신나리어린이집 /1999년

2 이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05년

3 이산노인복지센터 /2006년

1) 신나락어린이집/ 1999년

규모 : 대지300평/ 건물120평(목조건물)

직원 : 11명(기사 포함)

정원 : 영유아79명/ 방과후아동 20명

예산 : 3억 5천(2010년도)

원훈 : 신나는 생활, 튼튼한 체력, 자신감있는 아이

프로그램 : 보육서비스, 야간보육, 방과후 아동지도

2)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 2005년

▶ **규모** : 대지500평/ 건물306평

▶ **직원** : 11명(계약직 포함)/ 공익근무요원 3명

▶ **예산** : 4억2천만원(2010년)

▶ **프로그램** :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사업 등

3) 아산노인복지센터 / 2006년

▶ 규모 : 대지840평/ 건물 150평

▶ 직원 : 25명(요양보호사포함) / 공익 4명

▶ 예산 : 7억(2010년)

▶ 프로그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사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4. 효과

1. 교회
이미지

2. 지역주민과의
접촉용이

3. 교회성장
효과(6/27)

4. 일자리
창출

5. 미래교회
대안(미래)

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수상
(기윤실)
보건복지부장관수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아산서부사회복지관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아산서부사회복지관입니다.

논과 밭을 배경으로 한 솔숲 속의 복지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아산서부사회복지관이 바로 그런 복지관입니다.
전형적인 농촌에 위치하여 문화적, 교육적, 복지적 혜택에서 늘 타인으로
있던 농촌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오늘도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촌의 들판에 고적하게 떠있는 섬과 같은 세상을 나와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자주 오셔서 격려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손을 맞잡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장 이건열

기관의 Mission/Vision

미션 : 행복한 이웃을 만들어 가는 살림공동체

비전 :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시스템 구축
농촌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가치 : 예수님의 사랑 실천
인간존중
더불어 사는 세상

강의VIII. 나의 목회 철학

김동걸 목사 (돈암동교회)

강의IX.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세와 치루어야 할 댓가

오생락 목사 (춘천 하늘평안교회)

I. 하늘평안교회의 개척과 건축이야기

1. 갑작스런 교회개척

2. 작은 부흥과 큰 절망

3. 모험, 그리고 몸부림

4. 교회건축과 증축을 통한 은혜

5. 창립 제20주년을 맞이하면서...

II. 하늘평안교회의 주요사역소개

1. 전도

- 1) 행복플러스(새생명) 축제
- 2) 전도훈련(전도교재 사용)
- 3) 여호수아 전도대 운영

2. 정착

- 1) 바나바 사역 (3주)
 - ① 일시 : 매주일
 - ② 시간 : 새가족과 약속한 시간(약20-30분)
 - ③ 장소 : 교회내 조용한 곳 또는 공원
 - ④ 대상 : 새가족 전원
 - ⑤ 내용 : 교회생활에 대해 안내하고 교우들을 소개함

2) 새가족반 (5주)

- ① 일시 : 흘수월(1,3,5,7,9,11) 첫째 주일부터 5주간
- ② 시간 : 주일 오후12:50-2:00
- ③ 장소 : 사랑의 응접실(2층)
- ④ 대상 : 바나바 사역 마친 자
- ⑤ 내용 : 구원의 확신을 통한 신앙의 기초과정 확립

3) 새가족 환영회 (1주)

- ① 일시 : 격월
- ② 시간 : 주일 오후12:50-2:00
- ③ 장소 : 두란노실(4층)
- ④ 대상 : 새가족 전원(새가족반 수료자 포함)
- ⑤ 내용 : 시온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함께 나눔

3. 양육**1) 성장반 (15주)**

- ① 일시 : 3월과 9월에 시작하여 각각 15주간 교육
- ② 시간 : 남자반/수요일 오후9:00-11:00
여자반/화요일 오전10:00-12:00, 목요일 오후8:00-10:00
- ③ 장소 : 코이노니아실
- ④ 대상 : 새가족반 수료자
- ⑤ 내용 :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자아상과 그리스도인의 균형잡힌 신앙생활 등에 대한 교육

2) 일대일반 (16주)

- ① 일시 및 시간 : 개인의 상황에 따름
- ② 장소 : 가정 혹은 교회
- ③ 대상 : 새가족반 수료자 중에서 성장반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
- ④ 내용 :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교육

4. 훈련**1) 제자반 (32주)**

- ① 일시 : 3월에 시작하여 1년간 교육
- ② 시간 : 남자반/수요일 오후9:00-11:30(혹은 새벽기도 후)
여자반/화요일 오전9:30-오후1:00, 목요일 오후8:00-10:30
- ③ 장소 : 각 가정 및 코이노니아실
- ④ 대상 : 성장반 수료자
- ⑤ 내용 : 예수 그리스도를닮은 사람으로 성장하여 교회의 각 영역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

2) 사역반 (30주)

- ① 일시 : 3월 - 12월

- ② 시간 : 남자반/금요일 오후9:30-12:00
여자반/목요일 오전9:30-오후1:00
- ③ 장소 : 코이노니아실
- ④ 대상 : 제자반 수료자
- ⑤ 내용 :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자질, 소양, 기술, 그리고 리더십을 훈련하는 과정

III. 개척교회 목회자가 가져야 할 10가지 자세

1. ()을 버리라
2. 자기 자신을 () 평가하지 말라
3. 오직 ()만 의지하라
4. 자신의 ()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
5. 한 ()을 파라.
6. ()을 소홀히 하지 말라
7. ()의 조화를 이루라
8. 다른 ()와 비교하지 말라
9. ()에 충실하고, ()에 집중하라
10. ()와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

IV. 개척교회 목회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

1.

2.

3.

부록. 교회 개척형 리더십 연구

A Study on the Church Planter's Leadership

장성배 교수 (감신대, 선교학)

I. 들어가는 말

교회개척이 날로 어려워 가는 이 시대에 연구자가 주관했던 미자립교회 극복 프로젝트(M-Project)는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개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깨닫는 것은 교회개척이 전략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목회자에 따라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부흥하던 교회에 부임해 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목회자가 있는가하면, 다 죽어가던 교회에 부임해 간 목회자가 교회를 살리기도 한다.

몇몇 교단의 교회개척과 성장 책임자들과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거의 모든 교단들이 교회개척과 성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¹⁾ 여러 가지 정책을 써 보아도 교회의 성장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대체적인 의견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종교부지를 받아서 제대로 건물을 준비하고 개척하든지, 큰 교회의 분립개척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그나마 개척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 특혜를 받은 소수의 목회자에게나 해당되고,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온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러한 시대에 연구자는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젊은 간사들에게 눈길을 돌려본다. 그들은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faith mission) 본보기들이다. 그들은 건물이 없어도 캠퍼스로 들어가 기도하면서 대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도,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도, 그들의 주위에는 어느새 대학생들이 모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교회개척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 중심, 예배 중심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회자 리더십 중심의 교회개척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개척자형 리더십이 그것이다. 이는 마치 불모지에 기독교를 뿌리내리는 선교사와도 같다. 그렇다. 이 시대의 목회자는 다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개척형 리더인가? 연구자는 성격유형, 은사, 강점 등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다.²⁾ 이 도구들의 이론에 따르면 분명히 교회개척형 리더는 따로 있다. 그들은 소명만 분명히 확인하고, 교회개척의 전략을 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월하게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개척형 성격이나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은 개척을 포기해야 할까? 연구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다. 비록 내가 교회개척 방면에 강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했으면, 그 결단이 많은 핸디캡들을 극복하게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개척형 리더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것을 자신의 리더십에 구현해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교회개척의 열매를 거둬들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자.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려면, 경기장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분석하

1)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한국 교회 성장문화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8)

2) 조성환, *성격 리더십* (서울: 좋은책만들기, 2004); 로이 오스왈드, 오토 크뢰거, MBTI로 보는 다양한 리더십 (서울: 죄이선교회, 2002); 피터 와 그녀, *은사를 발견하라* (서울: 규장, 2002); 마크스 버킹엄, 도널드 클리프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서울: 청림출판, 2005) 등은 연구가가 주로 사용하는 개념과 도구들이다.

고, 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60-70년대만 하더라도 전근대적인 훈련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첨단의 스포츠 과학이 선수들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경기에서 승리한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교회개척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체와,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하여 모은 선교비, 그리고 나를 돋궜다고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내고 있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척 상황은 그야말로 무에서부터 출발하는 사역이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고, 개척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비전으로 이끌어 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회개척형 리더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개척자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교회개척형 리더들에게는 어떤 사항들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먼저 교회개척자들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개척자들에게 요구되는 목회적 능력들과,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갖춰야 하는 일반적 능력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요구항목에 따라 교회개척자 능력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교회개척자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하고 능력계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II. 교회개척의 과정

교회개척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와 성육신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같아지셔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의 핵심을 몸소 느끼셨다.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하셨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셨다.³⁾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성육신하신 단계를 묵상하는 것은 개척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20세기에 문화인류학의 발전에 힘입어 선교학은 선교방법에 있어서 현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다. 즉 자문화중심적 선교에서 상황화를 용납하는 성육신적 선교로의 전환이다.⁴⁾ 이는 상대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 속으로 복음을 성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교회개척자들에게는 중요한 관점을 준다. 이제 문화적으로 성육신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보자.

1. 교회개척의 동기와 원동력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미 개척된 작은 교회로 부임해 간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마치 일자리를 얻듯이 사역지를 찾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안수를 위한 진급을 위해서, 혹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곳을 찾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했는데도 일할 사역지가 없다고, 혹시 있더라도 그 사역지가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물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불평은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 그들은 왜 신학교를 찾아왔고,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가?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는 예수의 질문이 생각난다.⁵⁾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했으면 다른 곳을 찾아갔어야 했다.

그렇다면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그 개척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더

3) 장성배, 글로벌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서울: 성서연구사, 2001) 213-217.

4) 문화인류학과 선교에 대해 한국에 소개된 책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찰스 H.크래프트, 기독교 문화인류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폴 히버트, 성육신적 선교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폴 히버트,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서울: 조이선교회, 1997); 폴 히버트,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선교회, 1996)

5) 마 11:7-15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끝내 성육신하신 동기와, 지금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해서 일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성서는 그 동기와 원동력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는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⁶⁾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움직이게 했다. 열정적인 사랑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놓게 했다. 그렇다면 교회개척자들의 동기와 원동력도 이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개척자는 사역대상을 사랑하는 열정을 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모든 약조건을 뛰어넘게 한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자신 안에서 사역대상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뜨거운 사랑은 어떠한 교회개척 전략과 이론보다 강하다.

2. 교회개척자의 스타일

교회개척의 동기와 원동력이 사랑이라면 그 사역의 스타일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대상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를 섬기고 그가 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관심한다. 그 대상을 더 알기 원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전폭적인 관심은 상대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까지 보게 한다.⁷⁾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고난과 슬픔의 삶을 살아왔다. 그녀는 살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꼈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분은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⁸⁾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았다. 어느 정도의 권력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그 무엇을 보고 계셨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으실 때 삭개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다고 했다. 예수는 그제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다.⁹⁾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자 그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귀하게 보셔서 마지막 완성의 길을 제안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와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¹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평생을 걷지 못하여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적선을 구했다. 베드로는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잡아 일으켰다. 그는 걷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¹¹⁾

개척자가 진정으로 사역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을 깊이 관심하게 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게 되며, 그가 그것을 얻도록 힘써 돋게 된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도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6) 요 3:16

7) 섬김의 리더십과 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본다. 유성준, *예수처럼 섬겨라* (서울: 평단문화사, 2009); 박형순, *변혁적 서번트 리더십* (서울: 큐란출판사, 2004); 알렉산더 베라디, *서번트 리더의 조건* (서울: 시아출판사, 2003); 제임스 C. 헌터, *서번트 리더십* (서울: 시대의창, 2002)

8) 요 4:3-30

9) 뉴 19:1-10

10) 막 10: 17-226)

11) 행 3:1-10

3. 섬김의 초점 맞추기

개척자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의 사역자가 모든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은 아무도 섬기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떠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왔다”고 그의 사역대상을 분명히 했다.¹²⁾ 그가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땅 끝까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개척자들마다 서로 다른 섬김의 대상들을 계획하신다. 성서에는 특별한 대상의 구원을 위해 특별한 리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다. 요셉은 이집트와 그 일대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기근에서 구원되기 위해서 예비되었다.¹³⁾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해 내고자 준비되었다. 에스더는 위험에 처한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¹⁴⁾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각각의 사역자를 고유한 목적대로 디자인하신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이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¹⁵⁾

그러므로 사역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성격유형과 체질, 혈액형, 두뇌의 능력, 달란트 등은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의 결과이다. 그 하나님은 또한 특별한 지역적-문화적 배경, 가정적 환경, 삶의 경험을 통해 사역자를 빚으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은사, 열정, 흥미 등을 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¹⁶⁾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자신이 새들백 지역의 전문가들과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개척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조심스럽게 탐구하면서 자신이 열정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사역대상을 발견해야 한다.

또한 사역자는 자신이 섬길 사역대상을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도 안한 젊은 개척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아마도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사역자는 자신이 가장 잘 섬길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개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동역을 자청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동역자는 개척자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일 것이다. 즉 같은 대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문화적으로 사역자 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동역할 수 있다. 사역자와 그 동역자는 사역대상을 향한 같은 비전을 품고 있

12) 마 15:21-28

13) 창 45:4-8

14) 애 4:13-17

15) 시 139:13-18

16) 사명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책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rik Pees, *S.H.A.P.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6); J.로버트 클린턴 외,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5);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 *사역의 3가지 색깔: 은사테스트 및 개발 지침서* (서울: NCD, 2003); 산드라 허쉬, *자기발견 테마여행: 인생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서울: 요단출판사, 2002)

을 것이다. 다음의 대상군은 사역대상의 예가 될 수 있다.¹⁷⁾ 대학생, 청소년, 초등학생, 젊은 부부, 이혼 가정, 맞벌이 부부, 은퇴한 사람, 특별한 직업군의 사람, 독거노인, 소년가장, 장애우,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4. 나눌 것을 준비하기

구체적인 사역대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또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도 질문하자.¹⁸⁾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가 명심할 것이다. 그것은 줄 것이 없으면 개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역자가 사역대상을 통해 생활비가 생기고, 자신의 명성이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개척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사역자는 사역대상을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참된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역자는 사역대상에게 나눠줄 그 무엇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대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총체적인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¹⁹⁾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는 다음의 몇 가지 차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 육체적 차원: 영양부족의 상태, 육체적 허약의 상태로부터 건강한 육체를 회복하거나 대안적 삶을 개척하도록 도와야 한다.
- 2) 정신적 차원: 한정된 시각, 정신적 장애물, 빈약한 자아상, 연약한 마음, 비전의 부족, 그릇된 세계관, 손상된 정체감, 자기발전을 위한 정보 부족으로부터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사회적 차원: 사회적 능력 부족, 영향력 부족, 제한된 사회적 관계로부터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문화적 차원: 가난과 폭력의 문화 속에서 문화화 된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문화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화 과정을 겪도록 도와야 한다.
- 5) 경제적 차원: 노동과 생계능력 부족, 직업의 부재, 많은 부양가족, 희박한 지원, 제한된 기회, 저축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 6) 정치적 차원: 구조적으로 약자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정의와 평등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 7) 환경적 차원: 다차원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생태계의 파괴 상황에 대해 보다 총체적인 협력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8) 영적 차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정사와 권세에 유혹됨으로써 두려움의 속박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영을 회복해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각각의 차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괄성, 지속 가능성, 총체적 변화의 원리이다.

그러나 사역자가 이 모든 차원을 훌륭히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먼저 사역자는 총체적 관점 하에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때 기억할 것은 자신이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맞아야 한다는 것

17)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이 책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분석하며, 선교현장의 변화가 목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지역사회를 섬기는 전도에 대해 스티브 쇼그린의 책이 중요하다. 스티브 쇼그린, *101전도법* (서울: NCD, 2002); 스티브 쇼그린, *자연적 전도* (서울: NCD, 2001)

19) 스텠 롤랜드, *21세기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이레닷컴, 2001); John M. Perkins, *Restoring At-risk Communit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5); Carl S. Dudley, *Basic Steps toward Community Ministry* (New York: Alban Institute, 1991)

이다. 또한 그것이 부차적인 것 보다는 핵심적인 것이라면 더욱더 좋다. 그리고 사역자의 섬김과 나눔이 총체적 구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5. 포지셔닝과 브랜딩

포지셔닝과 브랜딩은 마케팅의 용어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반대로 설명하면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 포지셔닝과 브랜딩이다. 그렇다면 이 용어는 비 신앙적 용어로 거부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활용되어야 할 개념이다.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인식 속에 자사의 브랜드를 위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포지셔닝은 상품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이다.”²⁰⁾ 이러한 포지셔닝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기업들은 브랜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브랜드는 자사의 제품을 다른 회사의 그것과 구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보다는 제품의 브랜드를 더욱더 중요시한다.²¹⁾ 이렇게 볼 때 브랜드는 공장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무엇이다.²²⁾

교회 개척자들에게는 이러한 포지셔닝과 브랜딩 개념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개척자가 섬길 사역대상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기억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있지도 않은 정보를 과장해서 선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등록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과 반대되는 정보를 남발할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역대상을 가장 사랑하고 관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사역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것도 사역대상을 향한 일순간의 만족과 팝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열심히, 지치지 않고 사역대상을 섬기다보면 그 교회는 적어도 그들에게는 포지셔닝 된다. 청소년 사이에서, 대학생들에게, 직장 사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서, 여성 사역에서, 가정사역에서, 그리고 특별한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미지로 포지셔닝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이야기가 브랜드가 된다.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그 결과물이 말을 한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대상들에게 영향력이 확대된다.

III. 교회개척자의 목회적 능력

이러한 개척자들은 어떻게 양육되고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연구자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구체적인 목표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목표가 없는 교육은 그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어떤 인물을 배출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교회개척과 성장을 가르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신학교 커리큘럼은 막연하지만 200명 이상의 회중을 가진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서 사역할 목회자들을 배출하는데 관심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기존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만,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학교는 신학교육을 함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개척교회의 상황에서 사역하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의 교육훈련을 보강하는 커리큘럼을 준비해야 한다.

20) 잭 트라우트, 앨리스, 포지셔닝 (서울: 을유문화사, 2006) 19.

21) 김훈철 외 2인,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서울: 멘토르, 2006), 17-18

22) 구자룡, 한국형 포지셔닝 (서울: 원앤원북스, 2003), 98-105.

그렇다면 개척 상황에서 요구되는 목회적 능력은 어떤 것일까? 연구자가 현장의 목회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개척 상황에서 요구되는 목회적 능력은 기존의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과는 우선순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목회에서 중요시되었던 예배와 설교는 개척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제 개척 상황에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목회적 능력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해보자.

1. 기도

목회자가 개척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사역을 통해 익숙했던 것들 - 아름다운 교회시설, 많은 사역자들, 충분한 교회예산, 교회의 명성 - 이 사라지고 난 지금, 가장 절실하게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때 목회자에게 기도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무에서 출발해서 교회의 비전과 방향, 사역들을 형성해 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첫 발걸음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일수록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한다. 교회의 성경적인 이상, 사명, 이 교회의 포지셔닝/브랜딩,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혹은 깊숙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²³⁾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분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역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전도도 그분이 하신다.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그는 전도를 모르는 자이다.²⁴⁾ 그러므로 목회자는 여호와이례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개척당시의 이러한 기도 훈련은 목회자의 평생을 좌우한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습관, 가정에서 자녀들이 목회자 부모님과 기도하는 습관, 교회 멤버들의 기도생활 등 모든 것의 시작은 개척자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무릎 꿇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전도

교회 개척자는 스스로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²⁵⁾ 실제적으로도 목회자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회자 스스로 전도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크리스천 리더의 모습이다. 전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신학적으로 전도를 반대하는 목회자가 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저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직업을 가지고 성서를 연구하며 살아야 한다. 전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교회의 역동성과 생명을 말살하고,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며, 끝내는 쇠퇴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전도의 열정을 품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전도로 훈련된 목회자는 평생의 사역을 전도 중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가 목회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²⁶⁾

그러므로 개척자는 하루에 10명 이상을 만나서 자신의 교회의 비전을 나눠야 한다. “저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OO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짧고 명확하게 제

23) 오스왈드 샌더스, *그리스도인의 영적 리더쉽* (서울: 예찬사, 1999) 123-136.

24) 잭 브래드포드 롱, 더글러스 맥머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서울: 흥성사, 1999)

25) 전도자의 비전과 전도방법에 대한 책으로 다음의 책이 좋다. 브라이언 맥라렌, *나는 준비된 전도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리, 2004)

26) 엘마 타운즈, 더글拉斯 포터, *사도행전식 교회개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13-80.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정적으로 꿈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비전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무 감동도 줄 수 없다.

또한 개척자는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²⁷⁾ 신앙 간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 없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든다는 것처럼 모순되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개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개척자는 기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들, 경험적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시 확인하지만 사람들을 회심시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개척 이전에 그러한 능력부터 갖추어야 한다.

3. 성경공부

개척자의 비전에 동의하여 교회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나, 개척자에게 전도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교회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을 리더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개척자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개척자에게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전도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평신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성경공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참된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분명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당장 프로그램을 기동하여 사역을 하면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 시험에 들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바른 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교회의 힘이다.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개척자의 진정한 비전을 이해할 것이고, 진정한 동역자가 될 것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척자는 충분하게 성경을 통독한 사람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주석서 두 세 권은 서재에 있고, 그것을 다루는데 익숙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중요한 성경공부의 흐름과 방법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²⁸⁾ 그리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전문성 있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자훈련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즉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삶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개척자는 제자훈련에 정통해야 하고, 직접 제자를 양육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²⁹⁾ 수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제자 하나 만들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본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주위에 진정한 제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목회자의 교회는 세월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개척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데 우선적인 시간을 써야 한다. 이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척자 주위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게 하는 것만큼 확실한 교회개척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본인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다 예수의 제자인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전 삶을 걸기 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27) 윌리엄 맥케이, *나는 둘보는 전도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6)

28) 릭 위렌, *릭 위렌과 함께하는 개인성경연구* (서울: 디모데, 2006) 이 책은 열두 가지 성경 연구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29) 월터 A. 헨릭슨,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네비게이토, 2007)

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는 없다. 개척자는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하는데 정통해야 한다.

5. 소그룹운영

개척자 주위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개척자는 그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그 자체가 작은 공동체 교회의 기능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공동체 교회의 강점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들과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다.³⁰⁾ 공동체야말로 역동적 교회의 기초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건물 없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보면 캠퍼스 어디에서나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앞으로의 교회가 건물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사람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³¹⁾ 초대교회도 그랬고, 공동체형 교회의 많은 그룹들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다.³²⁾

그러므로 개척자는 공동체 중심의 교회론이 가진 선교적 강점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개척자는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연합으로서의 지역교회’를 이뤄 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³³⁾

6. 예배와 설교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면 강대상과 장의자를 준비하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며, 예배와 설교 중심의 목회를 시작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소수의 인원이 개척을 한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지역의 대형교회와 비교해볼 때 초라함만 더할 뿐이다. 또한 예배 중심적 목회는 ‘모이는 구조’ (come structure)의 선교 패러다임으로써 시대적인 요구에도 적절하지 못하다.³⁴⁾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수의 인원으로 다른 대형교회들의 예배를 따라가려는 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척 상황에서 형식적인 예배와 설교에 치중하다 보면 지역사회의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 중심적 본질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흩어지는 구조’ (go structure)의 선교 패러다임을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³⁵⁾

차라리 개척자는 성도들이 작은 회중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공동체형 예배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장소와 형식에 연연해하지 않고 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 설교 또한 진실되고 강하지만, 작고 소박한 공간에서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연구하고 실험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IV. 교회개척자의 일반적 능력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개척교회의 목회적 상황은 선교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개척자들에게는 교인들과의 사역 보다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만들어 가는 사역이 더 많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길들여

30)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서울: 평단, 2006) 136-187. 그는 여기에서 교회사 속에 나타난 공동체 운동들과,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논하고 있다.

31) 장성배,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서울: kmc, 2009) 99-101

32) 데이빗 쉬크, 얼빈 슈트츠만,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4)

33) 장성배,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116-124.

34) 장성배,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85-88.

35) Darrel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이 책은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문화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2층 혹은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고도 감히 밖으로 나올 용기를 내지 못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많은 단체들이 교회개척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 Church Planting Assessment Center나 Church Planting Village는 대표적인 단체로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³⁶⁾ 그 중에 Dr Ridley가 제시한 ‘13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Successful Church Planter’는 개척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도구로 인정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도구를 연구자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믿음으로 행동하기

개척자는 전우주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 지금도 그분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교회는 이 구원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을 이끌 것이다.³⁷⁾

교회개척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담대히 그 사역에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2. 교회성장에 대한 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쓰임 받는 교회는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를 이끌게 된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영향력이 아닌 섬김의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감동과 도전을 준다. 그러므로 사랑과 섬김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징조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타성에 젖은 현상유지적인 목회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한다. 또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공유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신앙의 성숙을 기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척자와 교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정적으로도 자립하려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하며, 끊임없이 점검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⁸⁾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갑작스런 성장에 혼혹되어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며, 자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비전을 현실화하는 능력

개척자는 비전의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대상을 향한 비전이 확실해야 한다. 그럴 때 개척자와 교회는 현실의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할 힘을 가지게 된다.³⁹⁾ 개척자는 도전을 장애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본다. 그러한 적극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다. 또한 이런 강렬한 비전은 사역대상에게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용

36) <http://churchplanting4me.org/>

<http://www.churchplantingvillage.net/>

37) Mark Conner, *Transforming Your Church* (Victoria, Australia: Conner Ministries, 2005) 25-46. 저자는 이 장에서 교회는 자신의 힘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38) 진 밴스, *목자의 심장을 가져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그는 이 책 전체에서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진정한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장한다.

39) 배종석 외 2인,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08) 71-85

기를 갖게 하고, 변화를 향한 여행을 시작하게 만든다.⁴⁰⁾

또한 개척자는 자신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실행을 위해 계획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⁴¹⁾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비전은 허황되게 보이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 비전은 우리의 삶 속에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전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그리고 재점검이 따르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꿈꾸는 자이면서 동시에 실천가이어야 한다.⁴²⁾ 또한 개척자는 동원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꿈을 감동과 도전으로 전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꿈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4. 주위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

교회개척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교회개척의 동기와 원동력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고, 교회개척의 스타일은 섬김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나눌 것이 없으면 개척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역대상을 섬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개척자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문화인류학적인, 사회학적인, 지역학적인 연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⁴³⁾

개척자가 이끄는 교회의 목회철학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자체 조직의 유지 보다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필요에 대해 준비할 때에도 주관적인 판단 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성육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지역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5. 비교인에게 다가가는 능력

많은 목회자들이 비교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도 그럴 것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생이 되면서부터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와 신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씩 멀어져가고, 그들의 관심주제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된다. 그들이 기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무지가 큰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것이 더욱더 경견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개척 상황은 이와 정 반대이다. 개척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관심주제 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들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성서를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성서 속의 복음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비교인들에게 다가가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비교인들이 세운 장벽을 뚫고 들어가 그들과 교류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척자는 비교인들의 심리와 정신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비교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하는데 익숙해야 한다. 비교인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위기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⁴⁴⁾

6.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어떤 단체이든지 그 규모가 커갈수록 인간관계 보다는 조직이 중요하게 된다. 교회 또한 그 크기와 규모가 성장해

40) 데이비드 비어, *비전과 목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8) 81-100; 마일즈 먼로, *비전의 힘* (서울: 프리셉트, 2008)

41) 배종석 외 2인, 86-116.

42) 데이비드 비어, 101-126

43) 조지 갤럽, 마이클 린드세이, *교인여론조사* (서울: 규장, 2002); 정지웅, *참여연구법과 그 사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44) George G. Hunter III, *How to Reach Secular Peop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39) 배종석 외 2인,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08) 71-85

가면서 기업의 운영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개척교회 상황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그는 개척자로서의 달란트 중에 중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7. 사역의 주인의식을 창조하는 능력

많은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교회 중심적이고 목회자 중심적인 사역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들은 교인들의 진정한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역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개척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함으로써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특히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더 크게는 교회의 비전을 지역사회 개개인의 비전과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이 교회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자로 하여금 공동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8. 사람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능력

어떠한 환경에서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능력과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이성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 뜻에 따라 적절하게 능력들을 분배해 주신다. 교회가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으로 허락하시는 섬김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

개척자는 어떠한 경우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힘과 은사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척자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그는 사람들의 은사를 목회 사역들에 연결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9. 배우자의 협력

개척자에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은 배우자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와 협력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협력을 이뤄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척자는 아내와 목회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 비전을 성취하는데 있어서도 서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팀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역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사이의 관계를 현명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와 사회를 향한 건강한 가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개척 시기에 다소 무분별해지기 쉬운 부분들, 예를 들면, 가정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칙들을 세우고, 가정의 사적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10.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 능력

개척자는 없던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 많지 않다. 또한 많은 경우에 혼자서 새로운 일을 개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척자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길에 의미를 부여하며, 실천하고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많은 경우 개척자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는 의지로 충만해 있다. 또한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 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욕구와 타월함을 향한 헌신이 있다. 솔선하는 태도와 도전 정신이 강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일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강한 지구력이 있다.

11. 융통성과 적응력

개척자는 전통적인 목회 보다는 현장 중심적인 목회를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신자들은 이미 전통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개척자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거나 교회 문화에 대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개척자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융통성과 적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개척자에게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교회의 존재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고백이 요구된다. 또한 개척자는 그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법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복음을 나누고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야하기 때문이다.

12. 신속한 회복력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목회를 실험하는 개척자에게는 많은 실패가 따라올 것이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비판을 두려워하면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형성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개척자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신속한 회복력이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한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결과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인내로 참아낸다. 또한 개척자는 일순간의 패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고,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한다. 그는 성공과 실패의 과도를 탈출 안다. 이를 위해 개척자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함으로 신속한 회복력을 유지한다.⁴⁵⁾

V. 교회개척자 능력 평가

앞에서 다룬 교회개척형 리더십의 특징에 따라 ‘교회개척자 능력 점검도구’ (Church Planter’s Ability Assessment)를 만들어 보았다. 그 항목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항목에 따라 ‘개척자의 목회적 능력’과 ‘개척자의 일반적 능력’으로 구분했다.

점검도구의 활용 방법

1. 각 문항에 대해 1에서부터 5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그저 그렇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45) 로이 오스왈드, *목회자의 자기 관리* (서울: 세복, 2000)

2. 각 항목은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점수를 합산하세요.
3. 각 항목 밑의 문항들의 합산에 대해 다음의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 (1) 25-20 : 아주 좋다.
 - (2) 19-11 : 이 부분의 보강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 (3) 10-5 : 근본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4. 각 항목의 점수에 대해 개척자 부부는 서로간의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3항의 방법대로 대처 계획을 세우세요.

이 점검도구는 자기보고식 평가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자에게는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아내와의 팀 목회에서 서로 조율하고 도와야 할 부분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컨설턴트와의 만남에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I. 개척자의 목회적 능력

1. 기도/묵상/영성 ----- (총점)
 - 1) 나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
 - 2)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기도한다.
 - 3)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다.
 - 4) 나는 기도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익숙하다.
 - 5) 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때가 많다.
2. 전도 ----- (총점)
 - 1)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 2)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 3)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믿는다.
 - 4) 나는 실제로 매일 나가서 전도한다.
 - 5) 실제로 자주 생활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있다.
3. 성경공부 ----- (총점)
 - 1) 나는 1년에 2회 이상 성경을 통독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
 - 2) 나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 3) 나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 4) 나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할 수 있다.
 - 5) 실제로 내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4. 제자훈련 ----- (총점)

- 1) 나는 스스로 예수의 충성된 제자라고 믿는다.
 - 2) 다른 교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재와 체계가 있다.
 - 3) 나는 실제로 사람들을 제자훈련하기를 힘쓴다.
 - 4) 나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5) 내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 간다.
5. 소그룹운영 ----- (총점)
- 1) 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론과 신학에 익숙하다.
 - 2) 나는 전인적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책을 읽었으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 3) 사람들은 내가 지도하는 소그룹에 모이기를 좋아한다.
 - 4) 내가 지도하는 소그룹은 예배, 성경공부, 친교를 나누는데 익숙하다.
 - 5) 내가 지도하는 소그룹은 ‘소그룹을 통한 선교와 전도’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기꺼이 선교와 전도활동을 한다.

6. 예배 ----- (총점)
- 1) 나는 예배를 인도할 때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된다.
 -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다.
 - 3) 나는 작은 공동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험한다.
 - 4) 나는 교인들이 주중에 세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훈련한다.
 - 5) 나는 교인들에게 삶 속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고 훈련한다.
7. 설교 ----- (총점)
- 1) 나는 설교에 대한 신학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받았다.
 - 2) 나는 성경을 주해하고, 본문을 설교화하는 방법에 익숙하다.
 - 3)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보다는 ‘누구에게 설교할 것인가’ 를 묻는다.
 - 4) 나는 내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 주제로 2-5회의 연재 설교를 할 수 있다.
 - 5) 나는 내가 설교한대로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설교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II. 개척자의 일반적 능력

1. 믿음으로 행동하기 ----- (총점)
- 1)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개척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
 - 2) 비록 내가 개척하였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믿는다.
 - 3)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줄을 믿는다.
 - 4) 나는 어려운 개척현실 속에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사역한다.
 - 5) 나의 사역대상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2. 교회성장에 대한 헌신 ----- (총점)
- 1)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 2) 나는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맥락에서 본다.
 - 3) 나는 현상유지적인 목회에 빠지지 않고 영적, 관계적, 신양적 성숙과 함께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 4) 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
 - 5) 나는 갑작스런 성장에 혼혹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에 더 집중한다.
3. 비전을 현실화하는 능력 ----- (총점)
- 1) 나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해 나간다.
 - 2) 나는 교회의 비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3) 나는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 4) 나는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강하다.
 - 5) 나는 한번 세운 계획은 꼭 실행하고야 만다.
4. 주위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 ----- (총점)
- 1)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 2) 나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성서적 근거와 신학적 틀을 갖고 있다.
 - 3) 나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시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정의하고 분석한다.
 - 4) 나의 목회 철학과 사역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다.
 - 5) 지역을 섬김에 있어 교회의 입장에서 보다는 그들의 필요 중심적으로 사역을 개발하고 있다. ☺
5. 비교인에게 다가가는 능력 ----- (총점)
- 1) 나는 비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
 - 2) 나는 비교인들의 심리와 정신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 3) 나는 비교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하는데 익숙하다.
 - 4) 나는 비교인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위기들을 다룰 줄 안다.
 - 5) 나는 비교인들의 방법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6.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 ----- (총점)
- 1) 나는 개인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다.
 - 2) 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한다.
 - 3) 나는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다.
 - 4)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표현한다.
 - 5) 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기 위해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7. 사역의 주인의식을 창조하는 능력 ----- (총점)
- 1) 나는 개개인의 비전을 교회 전체의 비전에 연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교회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 2) 나는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 3) 나는 위임을 통해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움으로써 그들이 사역의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 4) 나는 팀 사역에 익숙해서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이끈다.
 - 5) 나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한다.

8. 사람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능력 ----- (총점)

- 1) 나는 은사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
- 2)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 3) 나는 사람들의 은사를 목회 사역들에 연결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4) 나는 모든 성도들을 활용함으로써 소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도록 한다.
- 5)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과 은사에 따라 사역하게 함으로써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

9. 배우자의 협력 ----- (총점)

- 1) 우리 부부는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 2) 우리 부부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데 서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되어있고, 팀워크가 좋다.
- 3) 우리 부부는 사역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사이의 관계를 현명하게 조절할 줄 안다.
- 4) 우리 부부는 건강한 가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5) 우리는 가정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칙들이 있으며, 가정의 사적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10.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 능력 ----- (총점)

- 1) 나는 더 잘하려고 하는 바램과 탁월함을 향한 헌신의 사람이다.
- 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 3) 나는 솔선하는 태도와 도전 정신이 강하다.
- 4)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일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지구력이 강하다.
- 5) 나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는 의지로 충만해 있다.

11. 융통성과 적응력 ----- (총점)

- 1) 나는 세상과 교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고백이 있다.
- 2) 나는 교회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3) 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 방법만 고집하지 않는다.
- 4) 나는 늘 변화를 향해 열려있다.
- 5) 나는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도록 교육하고 이끈다.

12. 신속한 회복력 ----- (총점)

- 1) 나는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한다.
- 2) 나는 일순간의 패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
- 3) 나는 나의 계획이 무산된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한다.
- 4) 나는 성공과 실패의 과도를 탈출 안다.
- 5)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지킴으로 신속한 회복력을 유지한다.

VI. 나가는 말

이 연구는 교회개척형 리더십에 대한 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개척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 논해보았다. 개척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들어간 선교사와도 같다. 아니 그보다 더욱더 강한 소명감과 무장된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들 주위에는 이미 수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목회가 아닌 개척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중대형교회에서 목회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소수의 교인들밖에 없는 개척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의 목회와는 판이한 상황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익숙한 건물과 시설들과 잘 훈련된 평신도들,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제공되던 예산도 없는 절박한 상황은 목회자들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난관을 견뎌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목회적 자질들을 검토했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또한 세상과 만나는 최전선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필요한 개척자의 일반적인 자질들도 살펴보았고, 그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개척자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교회개척자 능력 점검도구’를 만들어 보았다. 비록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이 연구가 개척자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는 점검도구가 되어서, 강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Conner, Mark. *Transforming Your Church*. Victoria, Australia: Conner Ministries, 2005.
- Dudley, Carl S. *Basic Steps toward Community Ministry*. New York: Alban Institute, 1991.
- Guder, Darrell L. ed.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 Hunter, George G. III. *How to Reach Secular Peop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2.
- Pees, Erik. *S.H.A.P.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6.
- Perkins, John M. *Restoring At-risk Communit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5.
- 갤럽, 조지, 마이클 린드세이. *교인여론조사*. 서울: 규장, 2002.
- 구자룡. *한국형 포지셔닝*. 서울: 원앤원북스, 2003.
- 김훈철 외 2인.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서울: 멘토르, 2006.
- 롤랜드, 스탠. *21세기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이레닷컴, 2001.
- 롱, 잭 브래드포드, 더글拉斯 맥머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서울: 흥성사, 1999.
- 맥케이, 윌리엄. *나는 돌보는 전도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6.
- 먼로, 마일즈. *비전의 힘*. 서울: 프리셉트, 2008.
- 멕라렌, 브라이언. *나는 준비된 전도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4.
- 밈스, 진. *목자의 심장을 가져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박찬식,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 박형순. *변혁적 서번트 리더십*. 서울: 큐란출판사, 2004.
- 배종석 외 2인.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08.
- 버라디, 알렉산더. *서번트 리더의 조건*. 서울: 시아출판사, 2003.
- 버킹엄, 마커스, 도널드 클리프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서울: 청림출판, 2005.
- 비어, 데이비드. *비전과 목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8.
- 샌더스, 오스왈드. *그리스도인의 영적 리더쉽*. 서울: 예찬사, 1999.
- 쇼그린, 스티브. *101전도법*. 서울: NCD, 2002.
- 쇼그린, 스티브. *자연적 전도*. 서울: NCD, 2001.
- 쉔크, 데이빗, 열빈 슈트조만.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4.
- 슈바르츠, 크리스티안 A. *사역의 3가지 색깔: 은사테스트 및 개발 지침서*. 서울: NCD, 2003.
- 오스왈드, 로이, 오토 크뢰거. *MBTI로 보는 다양한 리더십*. 서울: 죄이선교회, 2002.
- 오스왈드, 로이. *목회자의 자기 관리*. 서울: 세복, 2000.
- 와그너, 피터. *은사를 발견하라*. 서울: 규장, 2002.
- 워렌, 릭. *릭 워렌과 함께하는 개인성경연구*. 서울: 디모데, 2006.
- 유성준. *세이버어교회*. 서울: 평단, 2006.

- 유성준. 예수처럼 섬겨라. 서울: 평단문화사, 2009.
- 장성배. 글로벌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서울: 성서연구사, 2001.
- 장성배.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서울: kmc, 2009.
- 정지웅. 참여연구법과 그 사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조성환. 성격 리더십. 서울: 좋은책만들기, 2004.
- 크래프트, 찰스 H. 기독교 문화인류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클린턴, J.로버트 외.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5.
- 타운즈, 엘머, 더글拉斯 포터. 사도행전식 교회개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트라우트, 잭, 앤리스. 포지셔닝. 서울: 을유문화사, 2006.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한국 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8.
- 허쉬, 산드라. 자기발견 테마여행: 인생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서울: 요단출판사, 2002.
- 헌터, 제임스 C. 서번트 리더십. 서울: 시대의창, 2002.
- 핸릭슨, 월터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네비게이토, 2007.
- 히버트, 폴.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죄이선교회, 1996.
- 히버트, 폴.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서울: 죄이선교회, 1997.
- 히버트, 폴. 성육신적 선교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참석자명단

No	연회	지방	교회	성명	성별	연급	교회창립년도	부임년도	연락처
1	서울 (11명)	노원	주원	강대현	남	정5	2007	2007	017-319-7308
2		종로	혜화동	기문규	남	정1	2001	2010	010-2852-6165
3		성북	맑은샘	김석윤	남	정1	2008	2008	010-9461-7236
4		성북	세원	민병희	남	정5	2006	2006	019-362-6201
5		서대문	새중앙	민진기	남	정	1998	2002	070-8226-3631
6		서대문	행복을여는	심태섭	남	정	2008	2008	019-473-4018
7		잠실	이링	유선행	여	정1	2011	2011	010-8877-2722
8		성북	기쁨의	이길웅	남	정1	2011	2011	010-2833-4747
9		성동광진	햇빛	조항권	남	정2	2005	2010	010-4316-1498
10		성북	기쁨의	이재은	남	서리	2011	2011	010-4268-4860
11		강북	예인	김영삼	남	정4	1993	2008	010-4476-3434
12	서울남 (4명)	강남동	우리	박병운	남	정20	2010	2011	010-6345-6100
13		송파	새비전	정강섭	남	정3	2005	2005	010-3235-8028
14		송파	문정포도나무	주홍덕	남	정7	2010	2010	010-8791-5645
15		강서	은현	허일석	남	정4	2009	2009	019-250-4283
16	중부 (8명)	새인천북	주시왕	김동기	남	정6	2011	2011	011-234-1289
17		남동	운연	김동진	남	정2	1988	1997	010-8897-1691
18		옹진	문갑	김민규	남	서리	1906	2010	010-4082-1403
19		인천남	언약	김오현	남	정1	2003	2007	010-5294-3233
20		부천북	대장	박정일	남	정	1970	1996	010-6399-1062
21		새인천	미추홀예음	유은식	남	정20+	2011	2011	011-338-2046
22		남동	남촌중앙	최신철	남	정3	1996	2009	010-3333-6346
23		부평서	서현	박광민	남	정6	2011	2011	018-404-2224
24	경기 (7명)	수원장안	포도나무	김상규	남	준2	2009	2009	010-2410-9588
25		안산	영광	박기성	남	정6	1997	2009	010-8844-7274
26		오산	기안	이운영	남	정10	1999	2003	011-712-9665
27		권선서	영광	전재익	남	정1	2011	2011	010-4946-7257
28		평택서	선민	주홍식	남	정5	2001	2004	010-4356-0032
29		평택서	군인교회	채애니	여	정1		2011	011-9052-0179
30		오산	영신	황성호	남	정	1991	2008	010-2717-9191
31	중앙 (10명)	의정부동	호원제일	김종홍	남	준1	2007	2010	010-3330-4188
32		의정부동	하늘샘	박성민	남	정1	2006	2010	010-5169-1508
33		광주하남	좋은우리	박시복	남	정8	2000	2000	010-6315-6554
34		의정부동	예원	박중섭	남	정1	2006	2011	011-9285-2412
35		여주서	하호	박한성	남	정6	1952	2006	010-2766-4182
36		남양주	제자	배영호	남	준1	2010	2010	010-7410-0558
37		이천남	장천	신세진	남	준2	1976	2009	010-9652-0091
38		광주하남	행복한	오승철	남	정9	1994	2007	011-9166-8291
39		여주동	열린	최영락	남	정1	2005	2007	010-6488-6989
40		이천중앙	수정	한명희	남	정	1980	2006	010-5872-0881

참석자명단

No	연회	지방	교회	성명	성별	연급	교회창립년도	부임년도	연락처
41	동부 (1명)	춘천동	선한	송영완	남	정3	1998	2010	010-3499-0379
42		영동	구음	안성원	남	정1	2001	2007	010-5550-0175
43		영동	행복한	오플록	남	정6	2002	2002	010-4588-0191
44		영동	화성	윤광흠	남	정	1986	1991	010-9243-6135
45		영동	하늘문	이상복	남	정	1996	1996	010-4942-1691
46		음성서	선한이웃	임원택	남	준1	2010	2010	010-8957-0633
47		영동	보은사도	정인석	남	정4	1985	2003	010-8936-2227
48	남부 (2명)	대전둔산	온누리	김혜원	남	정1	이름만	2011	010-3191-8290
49		대전유성	생명나무	도정환	남	서리	2011	2011	010-2237-2550
50	충청 (19)	홍주	실로암	김인경	여	준허	2002	2011	010-3417-1500
51		당진동	고대	성일웅	남	정	1987	2006	010-3453-1133
52		서산	서산성광	윤홍신	남	정	1999	1999	016-398-9955
53		서산	대산복지	진명호	남	정7	1999	2002	010-9936-2702
54		아산	은혜	정태훈	남	정5	1986	2009	010-3763-4659
55		예산	월곡	박종선	남	정20+	1980	2001	010-9845-4558
56		예산	삼성제일	임승규	남	정20	1995		010-3465-2739
57		예산서	오추리	유영석	남	준2	1954	2009	010-7731-6477
58		온양동	새생명	김한준	남	정10	1998	2008	010-4355-7822
59		천안	행복한	김찬기	남	정8	1999	2000	011-737-1231
60		천안	밀알	백민호	남	정1	2011	2011	010-3905-1486
61		천안	하늘소망	심규환	남	준2	1998	2008	010-9320-1691
62		천안	동행	안철민	남	준1	2005	2010	011-9045-8047
63		천안	모자이크	전병령	남	정1	2009	2009	010-4725-8420
64		천안	중리	최운천	남	정	1986	1997	010-5014-9126
65		천안서	새하늘	김태복	남	정	1992	2007	011-9813-0691
66		천안서	힘찬	백총관	남	정5	2009	2009	010-9044-3670
67		천안서	생명샘	이동철	남	정8	2006	2006	010-5431-1786
68		천안	소명	리희근	남	정	1998	2001	010-2878-3123
69	삼남 (2명)	울산	좋은교회	이승원	남	정1	2007	2011	010-3420-3096
70		부산서	이례	허정우	남	정2	1980	2008	010-4923-9101
71	호남선교 (1명)	전남서	지도	구인수	남	정3	2009	2009	010-5205-5464

이웃교단

No	교 단	교회	성명	직분	성별	교회창립년도	부임년도	연락처
72	기침	비전교회	이명건	목사	남	2000	2000	011-438-7366
73	기하성	늘사랑	정봉훈	목사	남	2001	2001	011-203-1530
74	백석총회	성지장로	한정수	목사	남	1990	1990	011-9049-5098

강사명단

성명	제목	연락처	이메일
태동화 목사	선교국 정책 소개	010-6529-1324	kmcmission@hanmail.net
박현식 목사	목회임지현실과 작은교회 살 길	010-4454-1954	phs2491@naver.com
김건우 목사	동화와 정착과정	010-8923-7340	kwkim@sarang.org
이창준 목사	저녁집회/다윗왕의 정치	010-3451-4362(이동섭)	
박민경 목사	맨 땅에 헤딩하기	010-3397-4378	jesus-mk@hanmai.net
김두현 목사	이렇게 전도했다	010-4315-9160	arca9160@naver.com
전대박 교수	발 마사지 전도법	010-7140-8291	junsa82@hanmail.net
박상길 목사	패러다임 전환 목회	010-6710-5339	p5174@hanmail.net
이건열 목사	현장건학/복지목회	010-3452-0206	gunlee70@hanmail.net
송기성 목사	저녁집회/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자	010-6392-9017	
김동걸 목사	나의 목회철학	011-719-9713	dong0895@hanmail.net
오생락 목사	개척교회의 자세와 치루어야 할 댓가	010-5367-8534	zionvision@hanmail.net
정용치 목사	결단예배/목회자의 유혹	010-9197-1441	

비전교회 함께하기 운동본부 조직

회장 김진호 감독 (도봉교회 원로)

부회장 한정호 감독 (서정교회)
김기택 감독 (성천교회)
권오서 감독 (춘천중앙교회)

본부장 강문호 목사 (갈보리교회)

※ 진행팀 전화번호입니다.

총무 | 원종휘 목사 (만석교회) 010-5479-8040

협동총무 | 태동화 목사 (본부 선교국) 010-6529-1324

서기 | 계인 목사 010-3357-9182

회계 | 이광호 목사 (도봉교회) 010-6576-1489

감사 | 김상현 목사 (부광교회)

| 지성래 목사 (예수사랑교회)

실행위원 | 강홍복 감독

| 김종훈 감독 (월곡교회)

| 김동걸 목사 (돈암동교회)

| 김규현 목사 (반석교회)

|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 이홍규 목사 (큰믿음유신교회)

* 이 세미나를 위하여 모든 임원들이 정성껏 후원하여 주셨습니다.